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A Study on Peruvian fisheries status and
Strategies of Korean distant water fisheries
access to Peruvian jurisdiction water

2017. 09.

정명화·이지은·김세인·오서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정명화 : 연구총괄, 제1장~4장

〈연구진〉

이지은 : 제2장 제3~4절

김세인 : 제3장 제1~2절

오서연 : 제2장 제2절, 제3장 제3~4절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3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5
제4절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6
1. 선행연구 분석	6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7
3. 본 연구의 한계	9

제2장

페루 수산업 현황과 성장잠재력 · 10

제1절 페루 경제 현황	10
제2절 페루 수산업 현황	13
1. 수산업 구조	15
2. 수산업 생산	18
3. 수산물 가공 및 수출	26

제3절 페루 수산분야 주요 정책 및 제도	29
1. 수산자원	29
2. 어분·어유 가공 공장의 환경 규제	30
3. 수산물 소비 활성화 정책 및 투자 장려	30
4. 양식산업 육성 정책	31
제4절 페루 수산업 관련 거버넌스 및 법률	33
1. 페루 수산업 거버넌스	33
2. 페루 수산업법	34
3. 페루 수산분야 외국인 투자 관련법	36
제5절 시사점	39

제3장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페루 시장진출과 현안 이슈 · 41

제1절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페루 진출 배경	41
제2절 대페루 원양어업 진출 현황	42
1. 대페루 수역 원양어업 진출 현황	42
2. 대페루 수산기업 진출 현황	46
제3절 페루 어장 재진출 관련 업계 의견 조사	48
제4절 주요국의 페루 어장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사례	50
1. 스페인	50
2. 일본	55
제5절 시사점	57

제4장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페루 진출을 위한 협력방향과 주요사업 · 58

제1절 기본 방향	58
제2절 협력사업(안)	59
1. 페루 어업인의 역량강화사업	59
2. 페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사업	60
3. 페루수산개발기금 활용 통한 ‘수산업역량강화센터’ 설립	61
4. 기후변화가 페루 수산업에 미치는 연구조사 사업	62
제3절 주체별 추진 방안	63
1. 관학연 중심의 한페루 수산분야 공동 연구 추진	63
2. 민간 협력 통한 페루 수산 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	63
3. 대페루 부처간 국제개발협력사업 연계 추진	64



참고문헌 · 65

»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 비교.....	8
〈표 2-1〉 페루의 주요 개황.....	10
〈표 2-2〉 페루의 양자다자협정 체결 현황.....	12
〈표 2-3〉 페루 쿠진스키 신정부의 주요 정책	13
〈표 2-5〉 페루 수산업 관련 종사자 수.....	16
〈표 2-6〉 페루 수산업 생산량 추이(2011~2015).....	18
〈표 2-7〉 페루 수산업 생산 추이(2011~2015).....	19
〈표 2-8〉 페루 해면 어업의 어종별 생산량(2011~2015).....	21
〈표 2-9〉 2015년 페루 수산물 생산량의 식용과 비식용 분류.....	22
〈표 2-10〉 페루 양식생산 추이(2011~2015).....	24
〈표 2-11〉 페루의 가공 수산물 생산량 추이(2011~2015).....	27
〈표 2-12〉 페루의 수산자원 보호조치.....	29
〈표 2-13〉 페루 생산부의 양식어업 추진전략(2015년 기준).....	32
〈표 2-14〉 페루의 입어료 및 양자협약 또는 합작투자 조건.....	37
〈표 2-15〉 페루 해역내 외국국적 어선의 허가 관련 법적 조항.....	38
〈표 3-1〉 우리나라 어업별 해외어장 진출현황(2015년 말 기준).....	41
〈표 3-2〉 우리나라 원양오징어 채낚기어업의 주요국 입어조건(2005년 기준).....	42
〈표 3-3〉 페루 수역 원양오징어업종(채낚기)의 생산량과 입어척수(2001~2016년)...	45
〈표 3-4〉 페루의 대왕오징어 가공공장(한인업체) 개요.....	46
〈표 3-5〉 스페인의 지역별/그룹별 중점지원국 현황.....	51
〈표 3-6〉 스페인의 대페루 수산 ODA 사업 현황.....	52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6
〈그림 2-1〉 페루 주요 자원 및 매장 지역.....	11
〈그림 2-2〉 페루 최근 10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	12
〈그림 2-3〉 2015~2016년 남미경제성장률.....	12
〈그림 2-4〉 2015년 페루 주요 산업의 GDP 대비 비중.....	14
〈그림 2-5〉 페루 지역별 연안어업 인구 분포.....	17
〈그림 2-6〉 페루 연안어업 인구 밀접지역.....	17
〈그림 2-7〉 페루 연안어업 어선 종류.....	17
〈그림 2-8〉 페루 수산업 생산량 추이(2006~2015년).....	19
〈그림 2-9〉 페루 주요 어종의 생산 비중(2015년 기준).....	20
〈그림 2-10〉 페루 수산업 주요 생산지역.....	23
〈그림 2-11〉 페루 수산물 주요 양육지.....	23
〈그림 2-12〉 페루 양식어업 주요 어종의 생산 추이(2006~2015년).....	24
〈그림 2-13〉 페루 양식어업 주요 어종의 생산 비중(2015년 기준).....	25
〈그림 2-14〉 페루 양식어업의 주요 지역(2015년 기준).....	26
〈그림 2-15〉 페루 수산물 수출액 추이(2006~2015).....	27
〈그림 2-16〉 비식용 수산물 수출지역.....	28
〈그림 2-17〉 비식용 수산물의 아시아 주요 수출 대상국.....	28
〈그림 2-18〉 페루의 수산관련 기관.....	33
〈그림 3-1〉 우리나라 원양오징어 생산량 추이(1980~2015년).....	43
〈그림 3-2〉 원양오징어업종의 어선수(1980~2015).....	44
〈그림 3-3〉 페루 수역 원양오징어업종의 생산량과 입어척수(2001~2016년).....	45

요약

페루 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 경제협력 통한 페루 수산업 발전 기반 강화로 어장 재진출 모색 -

페루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세계 어업 생산량의 4%를 생산하는 수산 강국이다. 어분의 원료가 되는 안초베타, 오징어, 가다랑어 등이 주로 생산되고 있는데, 비식용 수산물인 안초베타를 제외하면 실제 페루의 주요 생산 어종은 오징어, 가다랑어이다. 우리나라는 오징어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1990년부터 페루 200해리 수역에 진출하여 최대 6만 6,000톤의 생산고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 페루 정부가 연안 어업 보호를 위한 어업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자국 어선에 오징어 쿼터를 우선 배정하고 쿼터 잉여분에 한해서 외국 국적 어선이 공개 입찰 방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 결과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페루와의 협력 사업 추진 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수년간 입어가 거부됨에 따라 페루와 인접한 공해에서만 오징어를 생산하고 있어 1999년 최고 26만 톤에 달했던 페루 해역 오징어 생산량이 2016년에는 3,800톤 수준에 그쳤다. 이에 우리나라는 페루와의 수산협력을 강화하여 페루 원양어업 조업 재진출의 기회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과 일본 등 선진 공여국은 무상 원조 등의 경제협력을 통해 입어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일본은 1998년 무상원조로 파이타 어업 훈련센터를 설립하고 해당 센터에서 2002년까지 연승어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페루의 빈곤 감축 및 지역 양극화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어업을 대상으로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훈련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였다. 스페인은 지난 2000~2013년 동안 페루의 어업 및 양식업 개발, 수산 교육 및 훈련 등 1,300만 달러 규모의 ODA 사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2007~2010년에는 수산자원조사선을 이용한 심해 어장 및 해양생태계 조사, 승선

프로그램을 통한 어선원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6년에서야 페루 수산분야 ODA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도 양식 어업과 수산가공 공장의 HACCP 인증을 위한 역량 강화사업에 한정되어 추진되었을 뿐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페루 어장 재진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페루 정부의 자국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수산업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단순 입어로 지불을 통한 EEZ의 입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며, 사업의 방향은 페루측 수산분야 발전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우리나라 수산분야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페루 어업인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다. 페루는 일반 해면 어업 생산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선 어업 역시 소규모 연안어업이 대부분으로 근해 지역으로 생산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규모 어업인 대상의 어선 어업 역량 강화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양식어업을 육성하고자 하나 어업인의 역량 부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 협력 수요가 높다. 역량 강화 사업의 재원은 KOICA 또는 해양수산부의 ODA 사업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페루수산개발기금이 실시하는 인력훈련 과정을 확대·개설하고 우리나라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페루 수산자원 연구조사 지원 사업이다. 페루 대왕오징어의 자원 조사를 시작으로 수산자원의 조사 및 관리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페루 수산분야 연구인력 역량 강화사업도 병행시킴으로써 실제 페루 수산업의 발전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셋째, 페루 어업 인프라 개발 지원 사업이다. 페루 주요 양륙지가 대부분 가로등, 주차장 등으로 단순하고 수산물의 위생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부대시설 등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산물의 위생·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어획 후 손실(loss)을 최소화한 부가가치 제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페루 어항 및 산지 수산물 위판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수산물 양륙시설, 부대시설 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페루 수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제고하고, 페루 연안 지역 발전 및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국내 수산양식 및 수산 기자재 수출을 위한 페루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어장 재진출 추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페루, 수산업 육성 위해 외국어선 입어 제한적 허용

■ 페루 수산업, 세계 6대 수산 강국 위용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어업이 다수

- 페루 수산업은 GDP의 0.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 산업이지만 최근 5년간 어업 생산량이 연평균 12.3% 감소하여 2015년 495만 톤을 기록함
- 페루 어업 생산량 중 어분 등 비식용 수산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75%를 차지함. 양식어업은 전체 어업 생산량의 1.8%를 차지하며 주요 생산 어종은 가리비, 틸라피아, 송어 등 일부 품목 생산에 한정됨
- 페루 수산업은 엔초비타를 생산하는 일부 산업형 어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연안어업 생산이 주를 이룸. 우리나라가 주목하는 대왕오징어도 페루 소형어선 조업으로 생산되나 최근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페루 해역 외국 국적 어선 입어 제한적으로 이뤄져

- 페루 해역의 외국 국적 선박 입어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수산업 일반법령 N° 25977」과 「수산업 일반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Supreme Decree N° 012-2001-PE)」임. 해당법에 근거하여 페루 EEZ 입어가 가능한 외국 국적 선박은 과학 연구 목적, 제3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기업간 어업협정 체결 등으로 조건이 매우 제한적임
- 페루 영해에서 조업하는 외국 국적 선박들은 페루 자국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데, 일례로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IMARPE가 지정하는 과학기술 읍저버를 승선시켜야 함
- 외국 어선 입어의 엄격한 제한에는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페루 어업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외국 국적 어선의 입어로 자국 연근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자국내 비난 목소리가 높기 때문임

■ ‘2010~2021년 양식업 육성 위한 국가발전계획’ 마련으로 양식어업 육성코자

- 엔초비타 등 일반 해면어업 중심의 페루 수산업 생산을 다양화시키기 위해

- 2015년 ‘2010~2021년 양식어업 육성 위한 국가발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추진 전략은 크게 생산, 수출, 소비, 투자, 규제완화, 역량강화 분야로 구성됨
- 2021년까지 양식어업 생산량을 11만 톤으로 증가시키고, 이 중 2만 5,000톤~2만 7,000톤을 수출하여 양식 수산물 수출액이 1억 달러 달성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페루 자국내 양식 분야 규제를 완화하여 허가를 현재 수준의 20%, 양식 가능지역도 15% 확대코자 함
 - 양식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정부의 구체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우리나라 원양어선, 현재 페루 공해 조업만 이뤄져

■ 가공용 오징어 대체 어장 개발 차원에서 페루 어장 진출하였으나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장 폐쇄

- 1993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오징어유자망 조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가공용 오징어 전량에 대한 대체 어장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 오징어채낚기어선이 1990년 페루 200해리 수역 내에 진출함
- 남서대서양과 페루 어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어선 수는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에는 124척까지 증가하였으나 엘리뇨 등으로 인한 오징어 생산 어장이 분산되어 출어 척수가 급감하였음
- 2010년까지 10척이 페루 내측 수역과 공해에서 조업하였으나 2011년 수산업법 개정으로 내측 수역 조업이 이뤄지지 못함
- 즉, 페루 정부가 수산업법 개정으로 자국 어선에 대왕 오징어 쿼터를 우선 배정하고 잉여분이 있는 경우에만 외국 국적 어선에 공개 입찰을 실시하여 쿼터를 배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른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생산량은 1999년에 최고 26만 3,000톤에

서 2011~ 2015년 연평균 생산량이 약 7만 5,000톤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페루 해역 공해에서 2척이 조업, 3,824톤을 생산하였음

■ 현지 한인 교민 운영하는 가공용 오징어 업체, 오징어 원료 확보 어려움 겪어

- 2010년 기준 페루에서 오징어 가공업체 수는 약 50여 개로 추정되며¹⁾ 이 중 약 20%를 한인이 운영하고 나머지는 중국계와 스페인계 등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대왕오징어 가공업체 수는 약 10개로 파악되며 주로 파이타(Paita), 탈나라(Talara), 리마(Rima) 등 페루 북부 지역에 위치함
- 대부분의 업체는 오징어를 1차 가공하여 한국, 중국,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오징어 자원의 감소에 따라 가공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오징어 원료 공급처의 다변화, 오징어 이외 타 품종으로의 가공 생산의 다변화, 자사 어선을 이용한 직접 조업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음

■ 페루 공해상 조업 업체, 국내 오징어 어가 안정화 전제로 입어 가능 입장 밝혀

- 페루 공해에서 조업하는 국내 원양업체의 애로 사항 등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페루 해역 오징어 자원량 감소로 인한 어획량의 안정적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고, 이 외 어획물 해상전재, 유류 공급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페루 입어와 관련하여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페루 오징어 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가격으로 나타났음. 즉, 페루 EEZ 입어 시 오징어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페루, 칠레, 중국산 오징어의 수입 증가로 국내 오징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업체는 오징어 가격의 안정적 유지가 담보될 때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¹⁾ 정부 공식 통계는 없음

- 그 외에도 페루 EEZ에서 어획한 오징어의 원산지를 현행 '페루산'에서 '원양산'으로 인정하는 조건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해당 사항은 한·페루 FTA 협정문에서 체결된 원산지 규정에 따르고 있는 만큼 실제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 등 선진 공여국, 입어 위한 전략적 경제협력 실시

■ 스페인, 연구조사선 파견 · 페루 어업인 역량강화 위한 수산 ODA 수행

- 스페인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은 1) 어족자원 평가기반 구축, 2) 해양생태계의 정보 개선, 3) 지속가능한 수산업 개발, 4) 분야 간 정보 및 기술 교류, 5) 과잉 어업의 관리 강화, 6) 어업인 역량 강화, 7) 위생 개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음
- 2000년~2013년 스페인의 대페루 수산 ODA 사업은 총 93건(약 1천 3백만 불 규모)이며, 어업 및 양식업 개발(54건), 수산 교육 및 훈련(21건), 수산연구(7건), 수산정책 수립(6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음
- 특히 스페인 환경해양부(MARM)와 페루 수산연구소는 2007년~2010년간 수산연구 R&D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스페인의 수산자원조사선(Miguel Oliver)을 활용, 양국의 연구 인력이 참여하여 페루 Huarmey-Pisco 해역 수심 200 ~ 1,500미터의 심해를 조사하였음
- 또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인터마레호스(INTERMARES) 승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페루 어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실시하였음

■ 일본, 입어권 확보 위해 수산분야 ODA 전략적 활용

- 일본 수산분야 ODA 사업은 JICA와 농림수산성 산하 어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음. 어업협력재단은 일본의 입어로 협상과 관련하여 수원국의 수산관련 시설 수리, 어업 교육시설 건립, 양식시설 건립, 수산물 가공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함

- 대페루 수산 ODA의 대표적인 사업은 ‘페루 어업훈련센터 설립 프로젝트’ 사업임
- 동 사업은 페루 영세 어업인을 위해 1998년 파이타 어업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같은 해 프로젝트형 기술협력으로 어업인 대상의 페루 연승어업 어구·어법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을 실시함
- 또한 페루 지역 수산사무소 기술인, 대학, 수산연구원, 어업협회장을 대상으로 연승어업 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였음

■ 페루 해역 입어 위한 다각적·중장기적 접근 모색 필요

- 페루 정부의 수산자원 보호 조치 강화, 자국 수산업 발전과 연계한 EEZ내 외국 국적 어선의 제한적 입어를 허용하고 있어 과거와 같이 입어로 지불을 통한 EEZ의 단순 입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는 세계 주요한 어장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해역인 만큼 페루 해역 입어를 위해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 첫째, 민간분야의 페루 수산분야 진출 및 투자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함. 단기간 내에 페루 해역 직접 진출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업 이외의 원양어업 관련 사업, 즉 수산물 가공, 유통, 양식 분야에 대한 진출이 모색되어야 함
- 둘째, 민간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며, 지원 방식은 ODA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과 동시에 페루 수산분야 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국제개발협력은 페루 측 수산분야 발전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우리나라 수산분야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선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협력 사업에 페루 진출 국내 수산기업의 참여 촉진 및 원양어업의 재진출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

■ 페루 어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 통한 win-win 전략 모색

- 페루 어업 역량 강화는 크게 양식어업과 어로어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페루 양식어업은 전체 어업 생산량의 1% 수준인 9만 톤 수준이나 2021년 까지 최대 11만 톤으로 확대 생산하고 가리비, 새우 등 양식어업 수출도 약 1억 달러의 상향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만큼 양식어업의 협력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페루에서 요구하는 양식수산기술은 넙치 양식, 방류용 치어 생산, 사료 개발, 양식어류 부화장 설계,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 개발, 대형조류 모종 생산 및 상업용 대형조류 생산 등임
- 페루의 어선어업은 주로 연안의 소형 어선어업에 의존하고 있어 수산 자원의 근해 이동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페루 어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대형 어선어업(오징어 채낚기, 트롤, 선망 등)의 이전 또는 수출, 근해 어업에 필요한 어구 지원을 통해서 페루 소규모 어업인의 어획 능력을 개선하고 수산자원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또한 어선, 어구 지원과 함께 페루 어업인의 교육·훈련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어업 역량 강화에 기여함
- 역량 강화 사업의 재원은 첫째, KOICA의 ODA 사업 또는 해양수산부 ODA 사업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페루수산개발기금이 실시하는 인력훈련 과정을 확대·개설하고 우리나라가 인적·물적 지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페루 수산 자원 연구 조사 지원 통한 SDG Goal 달성 기여

- 대페루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목표를 국제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SDG Goal 14는 개발도상국의 해양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증가시키고, 연구 능력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페루 대왕오징어의 자원 조사, 자원량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대왕오징어 자원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조사 대

상 어종을 확대시킴

- 더불어 페루 수산분야 연구인력 역량 강화사업도 병행시키는데, 이러한 연구 조사 기능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페루 수산연구인력의 국내 초청연수 프로그램 수행 또는 페루 잠재적 연구 인력을 초청하여 한국 세계수산대학에 입학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페루 영해내 연구조사선을 입어시켜 현지에서 연구조사 역량 강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페루 어업 인프라 개발 지원 통한 페루 연안 지역 발전 및 고용 창출 기여

- 페루 주요 양륙지가 해안선을 따라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가로등, 주차장 등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고 수산물의 위생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부대시설 등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른 수산물의 위생·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어획 후 손실(loss)을 최소화한 부가가치 제고에도 제약이 따름
- 기존의 양륙지에 현대화된 어항과 산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 지원, 산지 위판장 운영 노하우 전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페루의 수산업 유통비용 절감과 어촌·연안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함
- 이미 우리나라는 1960년대~1980년대 어업 생산량 증가에 발맞추어 늘어나는 어선 세력과 수산물을 수용하기 위한 어항 및 산지 수산물 위판장 인프라를 연안에 구축하고 산지 위판장은 어항을 중심으로 수산물 양륙시설, 부대시설(제빙 및 저빙), 유류 공급시설, 판매 관련 시설 등을 구비하게 됨
- 이러한 인프라들은 어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도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음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지난 1957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 지남호가 사모아로 출항하였다. 이후 원양어업은 세계 5대양에 진출해 국내 식량 자원을 확보하고 수산물 수출을 견인해 왔다. 5대양 가운데 대서양 페루 해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소비 어종인 오징어가 생산되는 중요한 해외 어장으로 1992년 북태평양 공해 지역 오징어 유자망 어업 중단에 따라 대체 어장 차원에서 개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 해역은 1994년 약 6만 7,000톤의 오징어를 생산하는 등 우리나라 오징어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이다.

그러나 페루 정부의 입어 규제와 경제협력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양 어선은 2011년에 완전 철수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한 어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20년간 페루 해역에서 구축한 수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페루를 포함한 연안국의 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향후 해외 신규 어장 개척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기존 어장의 재진출을 통한 시장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페루 수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재진출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페루 수산업이 가지는 성장 잠재력을 살펴보면, 페루는 기후변화의 중심지이며 여전히 미이용 수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태평양 연안의 풍부한 어족 자원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어분(魚粉) 생산국이며 736개의 해수 어류 중에서 11%인 80여 종만을 이용하고 여전히 미이용 수산자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둘째, 페루는 중남미 및 아메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허브 지역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페루는 지리적으로 남미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브라질과 페루간 대서양 횡단철도를 건설하는 등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교두보

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페루는 TPP 가입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미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미국과도 FTA를 체결해 미주 지역의 진출기지로서도 전략적 가치가 높다.

셋째, 페루의 안정적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015년 페루 경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엘니뇨 현상에도 불구하고 3.3%의 성장률을 기록, 남미 국가 중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가계 소득 증가 및 페루 정부의 자국 수산물 소비 진작 정책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페루 가계조사(National Household Survey)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13년 10kg에서 2015년 12.3kg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페루 생산부의 자국 내 식용 수산물 생산을 위한 쿼터 확대는 페루 수산물 소비 확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페루는 우리나라와 2011년 FTA를 체결하면서 협정문 제20.5조에 수산업 및 양식업 협력을 명시화함으로써 수산분야 협력 근거를 마련하였다²⁾. 즉, 협정문의 수산분야 경제협력은 수산업 및 양식업 개발과 관련된 투자 증진, 수산자원 소비와 관련된 R&D 증진, 정보 교환 활성화 등이다. FTA 활용률 제고 측면에서 대페루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으로 대페루 수산분야 재진출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페루는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소비하는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어장이자, 남미와 미국 등 북미 시장으로 진출이 용이한 기회의 지역이다. 현재 페루 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페루 해역내 조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가공공장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페루 수산분야의 협력 수요에 근거한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페루 시장 재진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 매우 시의적절하다.

2) 대한민국정부와 페루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문 제20.5조,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 참조

제2절 연구 목적

우리나라 오징어의 국내 공급은 크게 원양어업과 연근해 어업 생산과 칠레, 페루, 중국 대만 등의 수입으로 이뤄진다. 국내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2001년 22만 톤에서 2016년 12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원양어업의 오징어 생산량 또한 16만 톤에서 2016년 약 2만 5,000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원양산 오징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중성 수산물로 가정 및 단체급식 등 기초식단에 이용되고 있으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오징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생산 감소를 겪고 있는 오징어 채낚기 업체들이 영세성으로 인해 적극적 해외 어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낚기어업은 타 어업과는 달리 3~4월의 단기 조업으로 단일 어종인 오징어만 생산하기 때문에 어획량 등락에 따른 이익 손실폭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뉴질랜드, 포클랜드, 페루 해역으로 세분화된 오징어의 주요 해외 어장의 입어 규제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법령 변경으로 외국 어선의 뉴질랜드 국적 전환이 요구되어 단순 입어가 불가하다. 북태평양 해역은 2001년부터 어장성이 부족하여 채낚기 어업이 진출하지 않고 있다. 칠레의 경우에는 1985년부터 합작 사업이 진출해 있고, 페루는 북양 유자망이 금지됨에 따라 대체어장으로 개발되었으나 국제경쟁입찰 실시에 따라 현재는 공해 조업만 이뤄지고 있다.

오징어 자원량의 큰 변동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오징어 해외 어장의 축소 및 까다로운 입어규제를 겪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오징어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페루 어장 재진출을 위한 여건을 살펴보고 경제협력 방안 도출을 통한 어장 재진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페루 수산업 현황과 법·제도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재진출을 위한 협력의 기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4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페루 수산업 일반현황과 수산업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페루 수산업의 생산 현황과 변화, 일반 경제와 수산업의 상관관계, 어업별 생산, 어선 등 수산 인프라, 수산가공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페루 수산업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신의 문헌 자료에 기초한 페루 수산 관련법·제도, 수산 관련 부처의 추진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페루 수산분야의 주요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추론하였다. 즉, 페루는 자국 내 수산자원 보호 및 소규모 어업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EEZ내 외국 어선의 입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생산량 감소가 자국 어업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면서 외국 어선의 입어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3장은 2장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페루 어장 진출의 배경, 진출 어장의 오징어 생산량을 분석함으로써 해외 어장에서 페루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북태평양 어장 폐쇄에 따른 대체 어장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된 페루 어장은 우리나라 대중 소비 어종인 오징어 특히 조미 오징어의 주요 공급 어장이다. 페루 자국법 개정전인 2010년까지 페루 EEZ 조업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단 2척의 어선이 EEZ가 아닌 페루 공해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 그러나 페루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일본 측이 최근까지 EEZ 조업이 이뤄진 점을 파악하고, 이들 국가의 입어가 가능했던 원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스페인, 일본의 대페루 ODA 사업의 목표와 주요 사업을 검토한 결과 자국 어선의 입어를 위해 ODA 사업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페루 수산분야의 역량 강화와 수산분야 연구 조사 사업을 수행한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페루 공해지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업체의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페루 어장이 개시될 경우의 진출 가능성, 페루 어장 진출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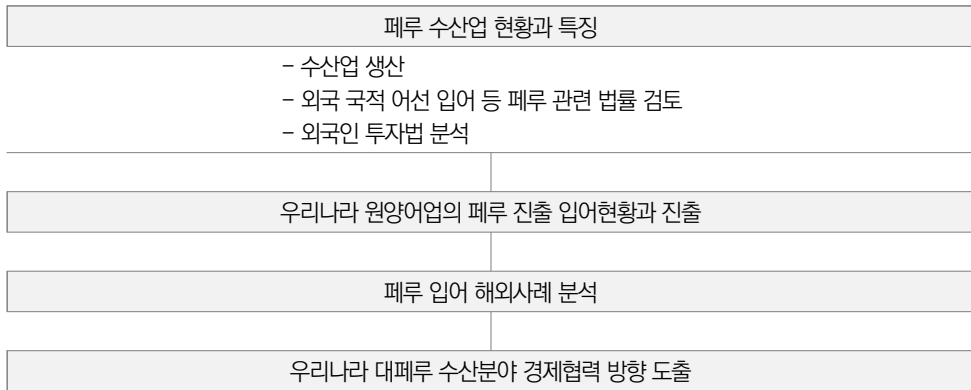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페루 진출을 위한 기본 협력방향과 협력 사업(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페루와의 수산 경제협력을 통한 원양산업의 진출 기반 마련’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즉, 페루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페루 지역 수산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원양어업의 재진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수산교육 훈련을 통한 페루 소규모 어업인의 역량강화 사업, 페루 양식어업 발전 지원을 위한 연구 조사 및 기술 이전 등을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원양어업의 페루 재진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페루 수산분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페루 생산부와 관계 부처에서 발표된 어업 통계 연보, 페루 연안어업 총 조사 등을 활용해 페루 수산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페루 수산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수산 자원관리, 수산분야 외국인 투자, 외국 국적 어선의 입어 조건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원양어업의 페루 진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원양산업 통계연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한국원양산업협회 관계자 및 페루 지역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및 전문가 자문 조사, 업계 서면조사를 병행하였다. 최근까지 페루 EEZ에 입어한 일본과 스페인의 입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페루 수산분야 ODA 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페루 수산분야 ODA사업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대페루 수산분야 협력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제4절 선행연구 분석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분석

페루와 관련하여 기존에 국내외에서 추진되었던 연구는 남미 또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페루 수산업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검토하거나 또는 어분 확보 차원에서 페루 어분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김대영 외(2012)의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어용 어분의 안정적 확보 방안 연구」는 세계 어류양식 현황 및 전망을 통해 양식 산업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어분 수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페루의 어분 산업을 검토하였다. 페루 현지 출장을 통한 어분 생산업체 및 페루 생산부 관계자 면담 조사 및 문헌 조사가 이뤄졌다. 페루는 어분의 원료가 되는 안초베타의 자원 보호를 위해 어획쿼터를 축소하는 등 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향후 국제 어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고품질의 어분을 확보하기 위해 페루와의 수산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홍현표 외(2011)의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페루와 브라질의 수산업과 수산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한·남미, 한·페루, 한·브

라질의 수산협력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 사업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페루의 수산부문 협력 사업의 목표를 페루의 수산업 진흥을 유도하고, 한국의 수산부문 진출 및 투자 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국제기구를 활용한 협력 사업, 양자간 협력 사업의 추진 등이 검토되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 사업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Vlad M. Kaczynski(2013)의 「The South America-Atlantic Fisheries: Main Assets and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에서는 문헌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및 사례 조사를 통해 남서 대서양의 사회·경제·환경적 의미를 검토하고 남서 대서양의 국제협력 제약 요소를 도출하였다. 특히 포클랜드 지역의 어업자원 및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조사를 통해 남서 대서양의 한국 진출 가능성이 검토되었다.

Jorge Salguero López(2015)의 「State of the Fishery, Ocean, Sea Port Logistics Industry and proposed Lines of Cooperation in Peru」는 문헌조사 및 통계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페루 수산업 현황뿐만 아니라 해양, 해운·항만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페루와의 과업 분야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페루 EEZ 입어가 금지된 2011년 이후 페루 수산업의 현황 및 수산분야의 정책·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페루에서 운영 중인 한인 수산가공 기업의 운영실태, 페루 공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원양업체의 면담조사를 통해 현안 및 애로사항을 파악함으로써 페루 시장 재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 점이 기존 선행 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이점 비교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양식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어용 어분의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 - 연구자 : 김대영 외 (2012) - 연구목적 : 양어용 어분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 및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어류양식업 현황 및 전망 - 국내외 어분 수급 실태와 전망 - 세계 어분 생산국 및 소비국 사례분석 - 양어용 어분 수급의 당면과제 및 안정적 확보방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활성화 방안 - 연구자 : 홍현표 외(2011) - 연구목적 : 한-페루 FTA에 의거하여 수산부문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남미 수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진출전략 및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미 주요국 수산업 실태조사 - 해당국 협력사업 수요조사 - 수산 부문 진출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미 주요국의 경제 현황 및 전망 - 한-남미 협력관계의 실태분석 - 남미 수산업 현황과 수산협력 필요성 - 페루 수산업과 수산협력 현황 - 브라질 수산업과 수산협력 현황 - 수산협력 추진전략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한-칠레 FTA 이후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 방안 - 연구자 : 전용욱 외(2004) - 연구목적 : 중남미 시장의 분석을 통한 중남미 향후 진출의 전략적 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 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남미 교역현황 및 진출현황 - 한-칠레 FTA이후 칠레시장 진출전략 - 중남미 허브로서의 칠레 거점화 전략 - 한-칠레 FTA이후 역외국 진출전략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The South America-Atlantic Fisheries: Main Assets and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연구자 : Vlad M. Kaczynski(2013) - 연구목적 : 남미 대서양 연안국과의 수산업 협력방안 가능성 및 제약요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 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서 대서양의 환경·경제·사회적 의미 - 남서 대서양의 국제협력 제약요소 -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의 어업자원, 관리 및 정책고려 사항 - 남서 대서양의 한국 진출 가능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 State of the Fishery, Ocean, Sea Port Logistics Industry and proposed Lines of Cooperation in Peru - 연구자 : Jorge Salguero López (2015) - 연구목적 : 페루의 수산·해양·해운·항만 현황 및 국제협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수산 현황 - 페루 해양 현황 - 페루 해운·항만 현황 - 과학 연구의 필요성 및 가능성
페루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수산업과 관련이 깊은 페루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추진방안 마련 - 2011년 페루 EEZ 입어 금지 이후 최근의 자료를 바탕으로 페루 수산업의 현황 파악과 원양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 및 심층면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수산업 현황 -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대페루 진출 변천 과정과 특징 - 대페루 원양산업 진출 해외사례 분석 - 국내 원양산업의 페루 재진출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3. 본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은 페루 수산업 현황과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를 위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재입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황 파악을 위해 최신 데이터 및 정책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나 제약된 연구기간 때문에 기존 연구문헌을 인용하면서 과거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되거나 페루 통계자료의 접근성 제한으로 최신 자료를 반영시키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페루 현지 진출한 국내 대왕오징어 가공업체 현황과 현안은 기존 현지조사를 수행한 전문가 자문조사 및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 다만 페루 공해어장에서 조업하는 업체와의 면담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도출한 점은 매우 유의미한 성과였다.

제2장

페루 수산업 현황과 성장잠재력 <<

제1절 페루 경제 현황

남미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페루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신흥 개발도상국이다. 페루 인구는 약 3천만 명이며 수도 리마(Rima)에 페루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9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페루는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 영향으로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다방면에서 스페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표 2-1〉 페루의 주요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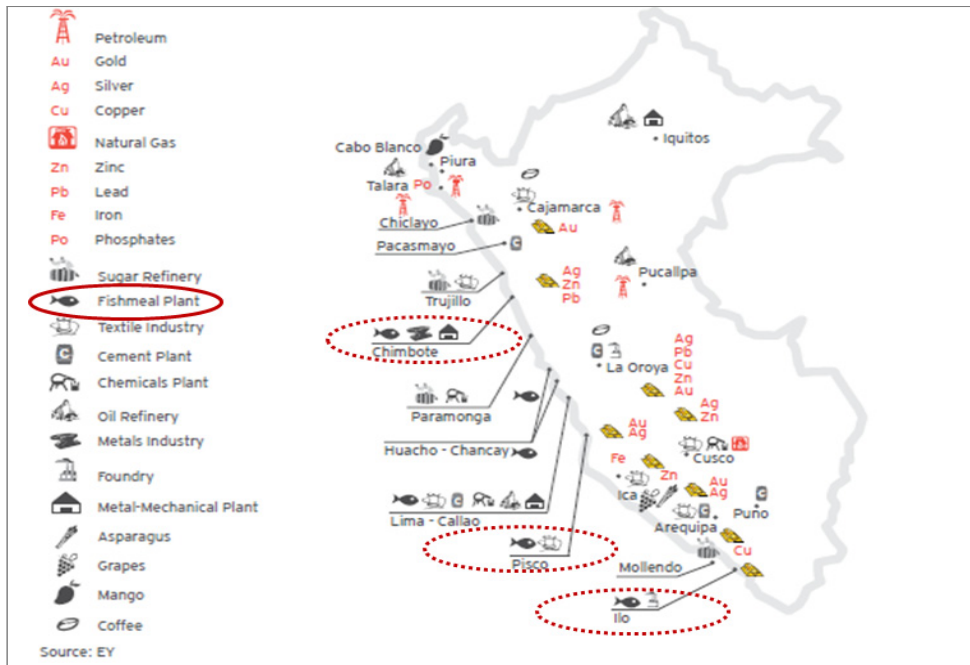
면적	1,285,216 km ²		
인구	3,138만 명, 리마 인구 약 998만 명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주요 산업	농·목축업 5.97%, 수산업 0.74%, 광업 및 원유개발 14.36%, 제조업 16.52%, 전기상수도 1.72%, 건축업 5.12%, 상업 10.18%, 기타 서비스 14.89%		
대외 교역액	수출 : \$341억 5,700만 수입 : \$373억 6,300만 (2015, FOB기준)	주요 수출품	광물자원, 농수산물, 섬유, 원유 및 천연가스
		주요 수입품	연료, 전력 관련 플랜트, 자동차, 곡물, 가전제품
주요 자원	· 은(세계 은 매장량의 22% 보유) · 구리(세계 구리 매장량의 13% 보유)		

자료: CIA, World Factbook(www.cia.gov); Peru's Business & Investment Guide 2014-2015, EY

페루는 다양한 기후와 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지역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페루의 EEZ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어장 중 하나로 손꼽힌다. 광물자원의 경우, 2012년 기준 은(1위), 구리(3위), 주석(3위), 아연(3위) 등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남미의 자원부국이다. 그러나 페루 정부는 광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다른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균형 있는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위하여 수산업 발전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페루 주요 자원 및 매장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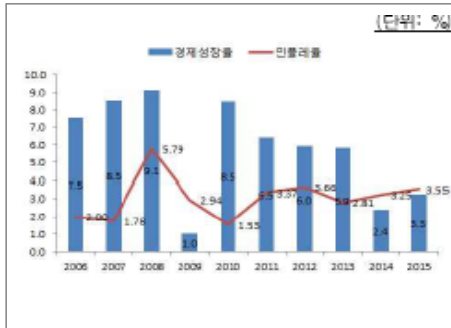


주: 붉은색으로 표시한 원은 페루의 주요 어장 및 어분 가공공장을 의미함

자료: Peru's Business & Investment Guide 2014-2015, EY, 그림 참조 저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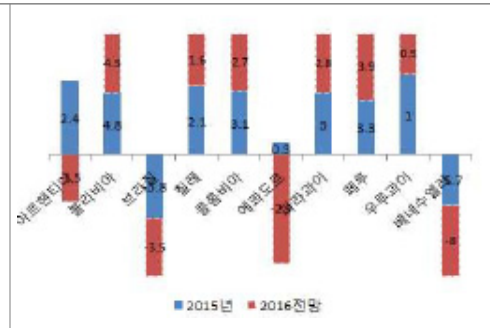
한편 과거 격심했던 인플레이션을 거쳐 페루는 2000년대에 들어서 안정적인 환율 유지, 낮은 인플레이션,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보였다. 2009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로 크게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3%의 안정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의 안정적 경제 성장으로 신흥 중산층이 형성되어 있고 중남미 물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 페루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시장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2-2〉 페루 최근 10년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



자료: 페루 중앙은행

〈그림 2-3〉 2015~2016년 남미경제성장률



자료: ECLAC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유지한 결과 페루는 남미 국가 중 칠레, 멕시코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³⁾으로 대아시아 교역에 적극적인 국가이다. 이에 세계은행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18개 중남미 국가에서 페루는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자리 잡았다.

〈표 2-2〉 페루의 양자다자협정 체결 현황

구분	대상국가
양자협정 체결국 (29건)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한국, 쿠바, 덴마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파라과이, 포르투갈, 영국, 체코,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태국, 벨기에-룩셈부르크 연방, 베네수엘라
다자협정	WTO, MERCOSUR, ANDEAN(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범태평양동맹(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비준절차 중	TPP, 과테말라, 온두라스, 브라질

자료: 「2017 페루시장 진출 전략」 KOTRA 리마 무역관, 2016.

또한 2016년 6월 경제관료 출신의 쿠진스키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제회복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더욱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진스키

³⁾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페루, 칠레만 참여중임

정부는 경제성장 연평균 5% 달성을 목표로 민간 및 공공투자 절차 간소화, 제조업 분야 생산 다양화 및 산업화 추진,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대외개발 정책을 유지하여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 노력을 강화하고 주요 무역파트너인 미국 및 중국 등과의 결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표 2-3〉 페루 쿠진스키 신정부의 주요 정책

구 분	주요 정책
경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 연평균 5% 달성 · 인프라부 및 지역지원부 신설 · 민간 및 공공투자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활성화를 위한 국가투자진흥청의 전국 지부 신설, 이를 위한 지역지원부 신설 · 제조업 생산 다양화 및 산업화 추진 ·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통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 인도와의 FTA 협상 완료 · OECD 가입 추진 및 TPP 비준 가속화

자료: 「2017 페루시장 진출 전략」, KOTRA 리마 무역관, 2016 인용, 저자 재작성.

제2절 페루 수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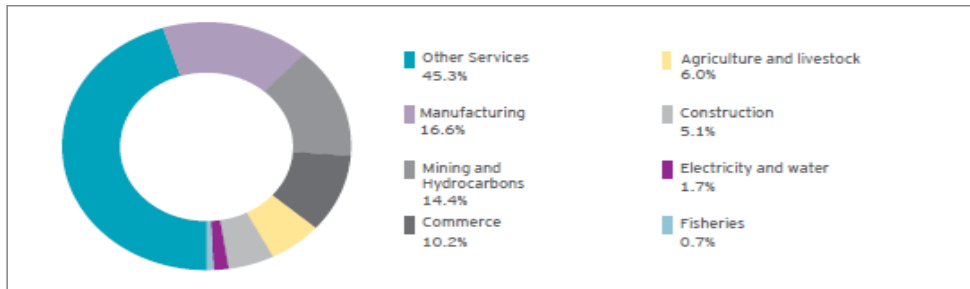
2016년 기준 페루의 수산업 생산은 GDP의 0.7%를 차지할 정도로 페루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페루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안초베타 수출은 페루 전체 수출액의 약 7%를 차지한다. 즉, 페루 수출액의 70%를 차지하는 광업 및 석유업을 제외하면 수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페루 경제의 중요한 축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3,000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흄볼트 해류⁴⁾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4) 흄볼트 해류(Humboldt Current)는 남미 대륙의 서쪽 연안 먼 바다를 북상하는 태평양의 해류로 적도로 향하는 해류 흐름 중에서도 최대 규모임. 쿠로시오 해류 등에 비해 속도는 느리고 유량도 1000~1500만 톤/초에 지나지 않지만 폭은 상당히 넓음. 또한 하층의 영양 염분으로 풍부한 차가운 바닷물을 받아들이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페루 먼 바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멸치(anchovi) 어장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 발생하는

가진 페루는 2015년 해면어업 기준 세계 6대 생산대국⁵⁾으로 세계 어업 생산량의 약 4%를 차지하였다.

〈그림 2-4〉 2015년 페루 주요 산업의 GDP 대비 비중



자료: Peru's Business & Investment Guide 2014-2015, EY, p. 20 그림 재인용

〈표 2-4〉 세계 주요국의 해면어업 생산량

단위: 천 톤, %

구분	인구수
페루 연안어업(2012년 기준)	44,161
- 여성 어업인(수산가공)	1,822
페루 수산업 총인구(2001)*	125,000
어선어업	70,000
양식어업	10,000
수산가공	25,000
가공 관련 기타 서비스	20,000

자료: 1.* FAO(<http://www.fao.org/fi/oldsite/FCP/en/per/profile.htm>)

2. I CENSO NACIONAL DE LA PESCA ARTESANAL ÁMBITO MARÍTIMO, 2012, Ministerio de la Production

엘니뇨 현상에 의해 적도 부근의 따뜻한 물이 연안을 따라 남하하여 홀볼트 해류도 약해져 페루 먼 바다의 표면 수 온상승 등 페루나 에콰도르 등의 태평양 연안 해역의 어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자료: 페루의 기후변화 영향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고찰 : 농업과 수산업, 하상섭)

⁵⁾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6, FAO

1. 수산업 구조

페루의 수산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영세어업과 대규모 어업으로 분류된다. 해면 어업의 경우 용적 32.6m³, 선체 길이 15미터까지의 선박을 이용하며 수작업으로 조업하는 어업을 영세어업, 용적 32.6m³ 이상의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규모 어업으로 정의한다.

대규모 어선은 심해 대형 건착망 어선, 트롤 어선 등으로 어획량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즉, 대형 건착망 어선은 627척이 있으며 주로 엔초비, 정어리, 전갱이, 고등어 등을 어획하고 연간 총허용어획량은 13만 2,000톤이다. 트롤 어선은 108척이 있으며 주로 남방대구, 전갱이, 고등어, 왕새우 등을 어획하고 연간 총허용어획량은 만 3,900톤이다. 목선(木船)은 36척이 있으며 주로 안초베타와 정어리 등을 어획하고 연간 총허용어획량은 2,020톤이다.

한편 페루의 영세어업은 우리나라의 연안어업으로 볼 수 있으며 대왕오징어 등을 생산한다. 페루 생산부가 2012년 최초로 실시한 연안어업 총조사 결과⁶⁾를 중심으로 페루 연안어업을 검토함으로써 페루 수산업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FAO는 2001년 기준 어업 인구와 수산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포함해 약 12만 5,000명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페루 정부가 공식 발표한 연안어업 총 인구수를 2012년 기준 4만 4,161명으로 연안 어업 인구가 전체 어업인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⁷⁾

6) I CENSO NACIONAL DE LA PESCA ARTESANAL ÁMBITO MARÍTIMO, 2012, Ministerio de la Production

7) 2001년과 2012년의 어업인구를 단순비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지만 페루 전체 수산인구에 대해 통계자료의 제약성을 고려해 전체 어업인구 중 연안어업 인구의 비중을 추정한 수준임

〈표 2-5〉 페루 수산업 관련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인구수
페루 연안어업(2012년 기준)	44,161
- 여성 어업인(수산가공)	1,822
페루 수산업 총인구(2001)*	125,000
어선어업	70,000
양식어업	10,000
수산가공	25,000
가공 관련 기타 서비스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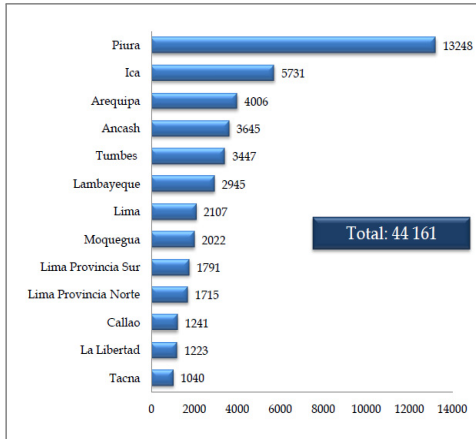
자료: 1.* FAO(<http://www.fao.org/fi/oldsite/FCP/en/per/profile.htm>)

2. I CENSO NACIONAL DE LA PESCA ARTESANAL ÁMBITO MARÍTIMO, 2012, Ministerio de la Pro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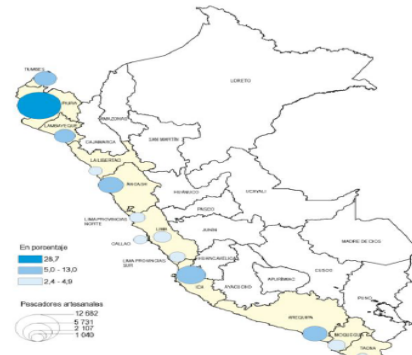
연안 어업인의 51%는 피우라에 거주하고 있다. 페루 연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수산물은 살오징어(빨간 오징어), 문어, 게, 해조류, 가리비, 한치 등 연체수산물이며 주로 낚시, 연승 등을 이용하여 어획하고 있다.

페루 연안 어업의 어선수는 만 2,398척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어선의 약 50% 이상이 피우라, 앙카쉬, 램바예고 지역에서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안어업 어선주의 77%는 배 1척을 가지고 있으며 2척 이상을 소유한 선주는 23%를 차지하였다. 전체 연안 어선의 약 79%는 보트(9,760척)이고 이 중의 45.6%만이 동력 어선이다. 즉, 우리나라가 주목하고 있는 대왕오징어는 주로 연안의 소형어선들이 낚시, 연승으로 생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소형어선이 동력엔진을 탑재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징어 서식지역이 연안에서 근해지역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생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2-5〉 페루 지역별 연안어업 인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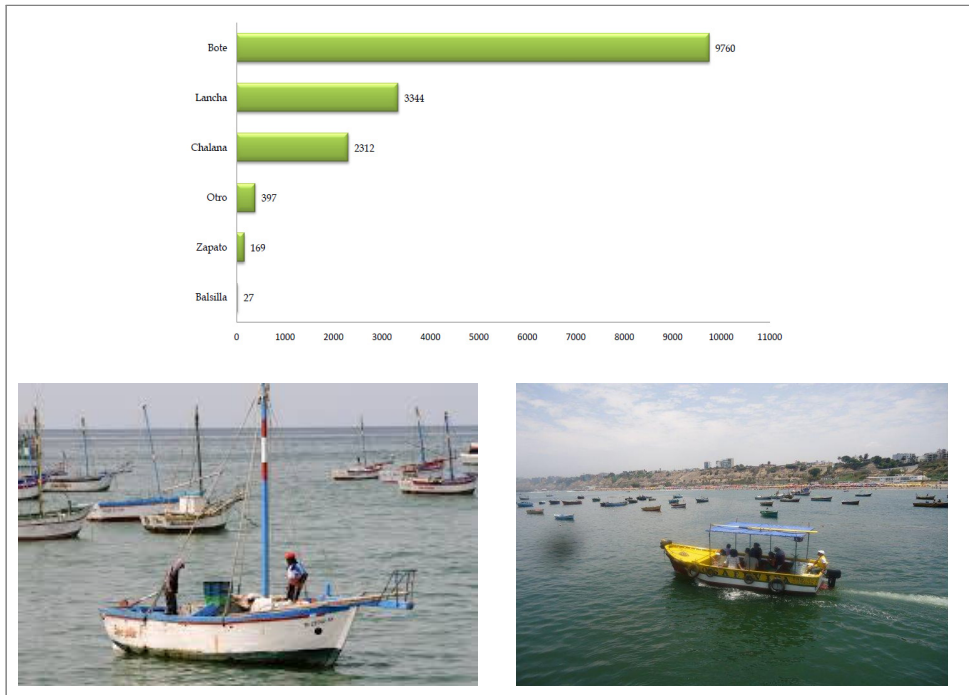


〈그림 2-6〉 페루 연안어업 인구 밀접지역



자료: I CENSO NACIONAL DE LA PESCA ARTESANAL ÁMBITO MARÍTIMO, 2012

〈그림 2-7〉 페루 연안어업 어선 종류



자료: 1. I CENSO NACIONAL DE LA PESCA ARTESANAL ÁMBITO MARÍTIMO, 2012

2. 구글 사진 인용(www.google.co.kr/search?q=POTA&newwindow)

2. 수산업 생산

2015년 페루 수산업 총생산량은 약 495만 톤을 기록하였다. 해면어업 생산량이 약 486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양식 생산량이 1.8%를 차지하였다. 페루 수산물의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해면 어업 생산량이 약 935만 톤을 기록한 이후 2010년 약 422만 톤으로 크게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가 2011년 820만 톤으로 회복되었으나 다시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양식어업은 2011년 9만 톤에서 2013년 12만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5년 다시 9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2-6〉 페루 수산업 생산량 추이(2011~2015)

단위: 톤, %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감률
해면어업	8,211,716	4,801,034	5,948,567	3,530,654	4,858,852	(12.3)
양식어업	92,201	72,293	125,693	115,269	90,976	(0.3)
합계	8,303,917	4,873,327	6,074,260	3,645,923	4,949,828	(12.1)

자료: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활용 저자 재작성

(<http://www.produce.gob.pe/index.php/features/anuario-estadistico>)

1) 해면 어업

페루 수산물 생산량 중 2015년 기준 식용 수산물 생산량은 125만 톤이다. 2006년 113만 톤과 비교하면 연평균 1.1%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식용 수산물은 통조림, 냉동, 신선냉장, 염장으로 구분되는데, 식용 수산물 가운데 냉동 수산물의 생산 비중이 약 51%를 차지하였고 신선냉장수산물이 그 뒤를 이어 35%를 차지하였다. 한편 비식용 수산물 생산량은 369만 톤으로 과거 2006년 589만 톤과 비교하면 연평균 5%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8〉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페루 수산물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비식용 수산물의 생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2-7〉 페루 수산업 생산 추이(2011~2015)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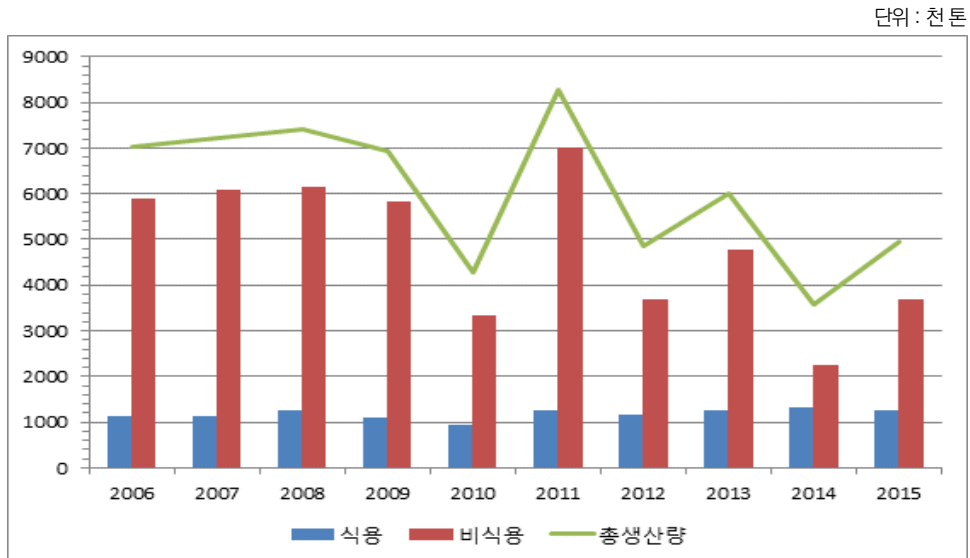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감률
합계(A+B)	8,272.1	4,861.3	6,016.1	3,593.7	4,943.2	(12.1)
식용(A)	1,269.8	1,165.0	1,250.4	1,327.8	1,252.9	(0.3)
통조림	202.6	125.4	144.0	98.2	117.5	(12.7)
냉동	700.4	672.9	633.6	728.4	644.7	(2.1)
염장	36.3	37.0	54.0	62.1	55.1	11.0
신선냉장	330.5	329.7	418.7	439.1	435.6	7.1
비식용(B)	7,002.3	3,696.3	4,765.7	2,265.9	3,690.3	(14.8)
안초베타	7,000.1	3,693.9	4,754.1	2,263.9	3,686.8	(14.8)
기타	2.2	2.4	11.6	2.0	3.5	12.3

주: 해당 총 생산량은 해면어업, 내수면 어업 및 양식 어업의 생산량을 포함함

자료: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활용 저자 재작성

(<http://www.produce.gob.pe/index.php/features/anuario-estadist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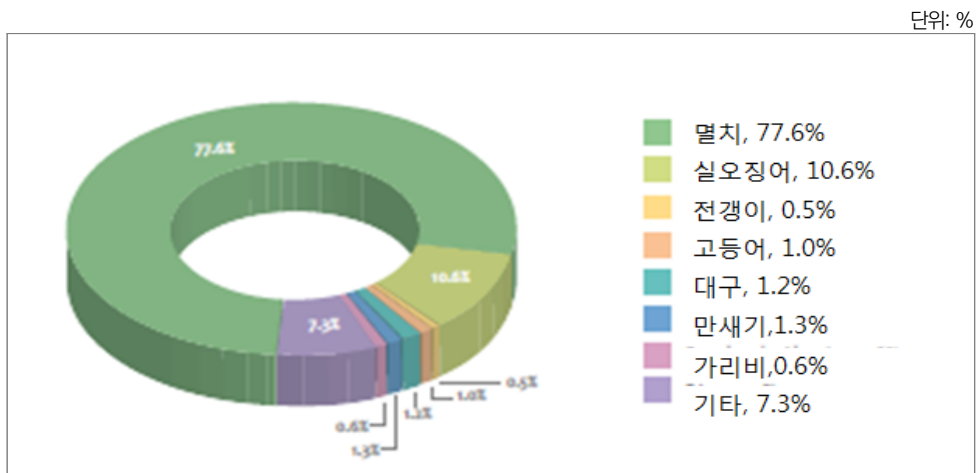
〈그림 2-8〉 페루 수산업 생산량 추이(2006~2015년)



페루는 736개의 해면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 일부 어종만 상업적으로 어획되고 있다. <표 2-8>은 페루 일반해면어업의 어종별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기타로 분류된다. 어류는 다시 부어류와 저서류 등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는데 안초베타, 가다랑어 등 부어류가 2015년 기준 약 400만 톤 생산되어 일반해면어업 전체 생산량의 약 83%를 차지하였다. 특히 부어류의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2011년 약 750만 톤에서 2013년 약 510만 톤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250만 톤으로 급감하였다가 2015년 약 400만 톤으로 회복되었다. 이는 부어류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초베타의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의 주요 어종별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안초베타가 전체 생산량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실오징어가 약 11%를 차지하였다. 그 외 만새기, 대구, 고등어가 각각 1.3%, 1.2%, 1.0%를 차지하였다.

〈그림 2-9〉 페루 주요 어종의 생산 비중(2015년 기준)



자료: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활용 저자 재작성

(<http://www.produce.gob.pe/index.php/features/anuario-estadistico>)

〈표 2-8〉 페루 해면 어업의 어종별 생산량(2011~2015)

단위: 톤

어종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감율
총 (I+II+III)	8,211,716	4,801,034	5,948,567	3,530,654	4,858,852	12.3
I. 어류 (A+B+C+D)	7,650,889	4,180,788	5,321,832	2,829,126	4,197,477	13.9
A. 부어류	7,502,502	4,059,525	5,104,556	2,592,894	4,023,232	14.4
안초베타	7,125,244	3,776,880	4,859,056	2,322,228	3,769,920	
가다랑어	14,654	23,893	38,610	40,826	93,049	
만새기	43,688	42,347	55,830	55,136	61,909	
고등어	46,946	26,781	58,297	73,844	49,964	
B. 저서류	41,142	43,619	36,751	38,039	39,630	10.9
대구	37,645	33,147	54,522	63,940	56,286	
볼상어	5,890	4,491	4,120	5,584	8,641	
Ayanque	4,323	2,838	3,551	4,800	4,416	
coco	1,207	1,476	1,382	2,038	2,763	
C. 연안(부어류+저서류)	41,142	43,619	36,751	38,039	39,630	0.9
송어	13,335	18,638	13,781	14,169	13,955	
고등어	11,556	8,228	8,318	9,728	7,669	
Pintadilla	251	291	256	951	318	
Lorna	9,049	9,023	7,742	5,823	7,623	
D. 기타	55,730	31,497	115,231	118,409	56,718	
II 갑각류 및 연체동물 (A+B)	553,380	614,365	603,119	673,829	640,042	3.7
A. 갑각류	31,041	32,462	29,570	32,861	60,791	18.3
가재	29,221	29,869	27,212	30,689	58,005	
게	1,797	2,593	2,343	1,954	2,539	
B. 연체류	522,339	581,903	573,550	640,968	579,251	2.6
살오징어	404,730	497,462	451,061	556,156	513,796	
가리비	93,050	39,678	91,474	56,820	30,396	
오징어	2,251	20,483	16,611	10,986	18,330	
III. 기타	7,447	5,881	23,616	27,699	21,333	30.1
극피동물(성게)	1,552	2,295	1,427	1,868	1,521	
해조류	5,801	3,585	22,189	26	19,812	

자료: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활용 저자 재작성

(http://www.produce.gob.pe/index.php/features/anuario-estadistico)

페루의 주요 어업 생산량을 식용과 비식용으로 분류해보면 보면 아래 <표 2-9>와 같다. 2015년 기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약 486만 톤 가운데, 식용 수산물이 약 117만 톤, 비식용 수산물은 369만 톤이다. 이중 어류는 전체 생산량의 88%가 비식용으로 사용되고, 50만 톤만이 식용 수산물이다. 즉, 어류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안초베타인 점을 감안하면 식용에 사용되는 주요 어종은 오징어, 전갱이, 고등어 등 일부 어종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9> 2015년 페루 수산물 생산량의 식용과 비식용 분류

단위: 톤

구분	총생산량 (A+B)	비식용 수산물(A)	식용 수산물(B)				
			소계	신선 냉장	통조림	냉동	염장 훈제
합계	4,863,030	3,690,251	1,172,779	376,179	117,478	640,742	34,202
어류	4,197,477	3,690,251	507,225	283,575	115,616	88,812	19,222
갑각류 및 연체동물	644,220	-	644,220	86,981	1,862	551,043	156
기타	21,333	-	21,333	5,622	0	887	14,824

자료: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활용 저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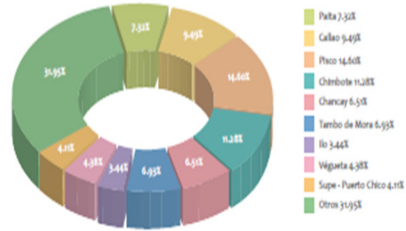
(<http://www.produce.gob.pe/index.php/features/anuario-estadistico>)

주요 생산 지역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페루 최대 양육지는 피스코(Pisco)로 약 70만 톤이 양육되었다. 두 번째로 많은 양육량을 기록한 지역은 침보테(Chimbote)로 약 55만 톤이 생산되었다. 두 지역은 대부분 비식용 수산물이 주로 생산되며, 식용 수산물의 최대 양육지역은 파이타(Paita)로 약 35만 톤이 생산되었다. 파이타 지역의 주요 생산 형태는 살펴보면 냉동 수산물이 약 32만 톤으로 약 91%를 차지하고, 그 외 신선냉장 만 7,347톤(4.9%), 통조림 만 2,485톤(3.5%)이 있다.

〈그림 2-10〉 페루 수산업 주요 생산지역



〈그림 2-11〉 페루 수산물 주요 양육지



자료: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활용 저자 재작성

(<http://www.produce.gob.pe/index.php/features/anuario-estadistico>)

2) 양식 어업

페루의 2015년 양식어업 생산량은 약 9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약 1.8%를 차지한다. 페루의 양식 어업은 해면 양식과 내수면 양식으로 나뉘볼 수 있으며 내수면 양식은 다시 지형에 따라 고원양식, 아마존 강 유역 즉, 정글 양식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면양식의 주요 어종은 가리비, 넙치, 새우, 틸라피아 등이 있고 내륙 및 고원지대에서 양식되는 내수면 어종은 송어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강 유역의 정글지역에서 양식되는 어종은 관상어, 파이체(paiche), 기타 아마존 어종 등이 있다.

2015년 기준 해면 양식 생산량이 4만 5,218톤으로 전체 양식 생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내수면 양식이 4만 5,758톤 생산되었다. 연도별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내수면 어업은 연평균 18%의 증가세를 보이며 생산량이 증가하고 해면 양식어업의 생산량은 약 10%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내수면 양식어업과 해면 양식어업의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2-10〉 페루 양식생산 추이(2011~2015)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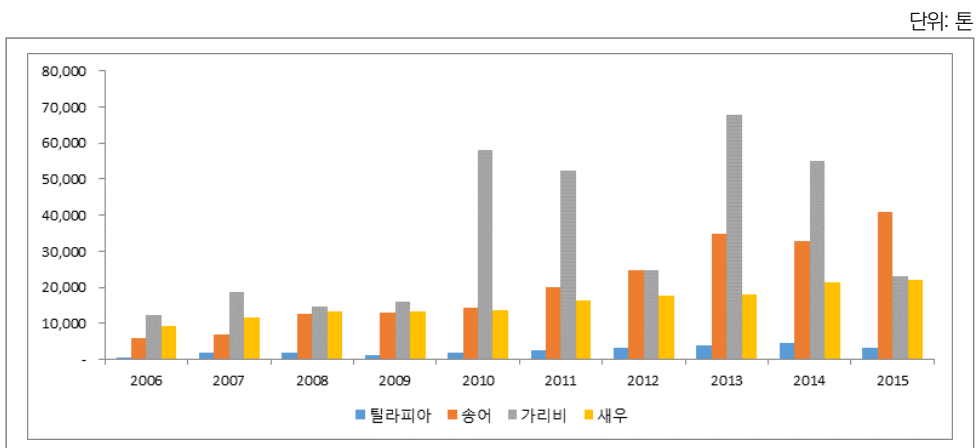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감율
합계(A+B)	92,201	72,293	125,693	115,269	90,976	(0.3)
내수면 양식(A)	23,609	29,564	40,068	38,683	45,758	18.0
송어	19,962	24,762	34,992	32,923	40,946	19.7
틸라피아	2,423	3,174	3,840	4,610	3,250	7.6
파코(Paco)	130	299	443	453	825	58.7
해면양식(B)	68,592	42,730	85,625	76,586	45,218	(9.9)
가리비	52,213	24,782	67,694	55,096	23,029	(18.5)
새우	16,379	17,801	17,883	21,484	22,183	(7.9)

자료: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p.137 활용 저자 재작성

(<http://www.produce.gob.pe/index.php/features/anuario-estadistico>)

페루의 양식어업의 주요 생산 어종은 아래 〈그림 2-12〉와 같이 틸라피아, 송어, 가리비, 새우이다. 가리비는 2011년 5만 2,213톤으로 페루의 최대 생산 품목이었으나, 2013년 6만 7,694톤 기록 후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송어 생산량은 연평균 19% 증가세를 기록해 2015년 최대 생산 품목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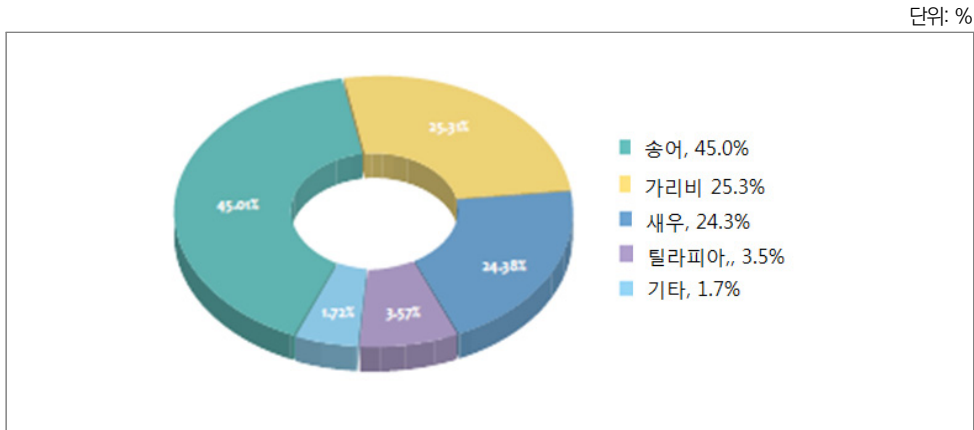
〈그림 2-12〉 페루 양식어업 주요 어종의 생산 추이(2006~2015년)



자료: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p.137 활용

(<http://www.produce.gob.pe/index.php/features/anuario-estadistico>)

〈그림 2-13〉 페루 양식어업 주요 어종의 생산 비중(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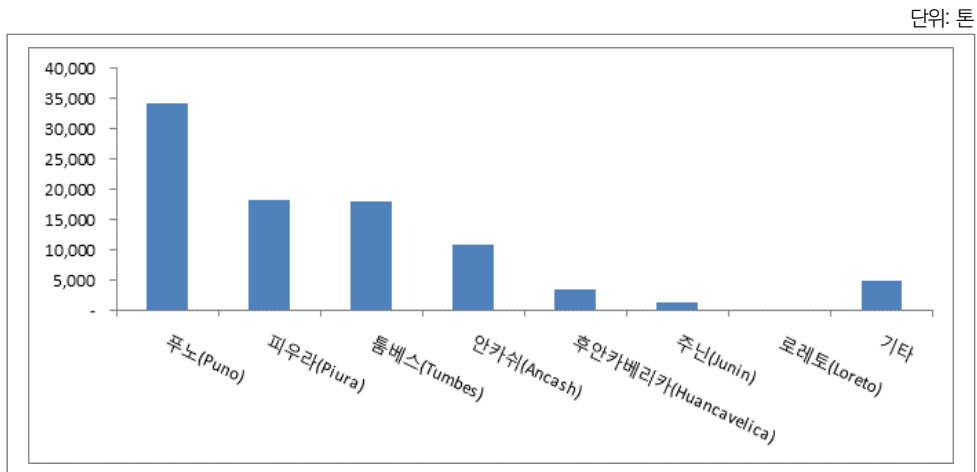


자료: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p.137 활용 인용

(<http://www.produce.gob.pe/index.php/features/anuario-estadistico>)

페루 양식 주요 어종의 생산 지역 및 생산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페루산 가리비는 수온 상승에 대한 적응성이 우수하고 장기적으로 연중 산란이 가능하여 엘니뇨로 인한 어획량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영세 어업인 중심의 야생 채집 혹은 양식을 통해 생산되고 있어 향후 가리비 양식 생산의 조직화 및 규모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둘째, 새우는 페루의 북쪽 해안가 Tumbes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페루의 기후 조건, 낮은 토지 가격, 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 이용 경쟁률 등은 양식어업에 유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송어 양식은 현지 시장 및 수출용으로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 생산되고 있다. 열대 지역에서 양식되는 기타 어종은 토착종으로 ‘gamitana’ 또는 블랙 파쿠(black pacu; *Colossoma macropomum*), 레드 파쿠(red pacu; *Piaractus brachypomus*), 프로킬로돈과의 ‘boquichico’ (*Prochilodus nigricans*) 등이며 대부분 현지 시장 소비용으로 생산된다. 마지막으로 틸라피아 양식의 경우, 현지 소비용은 산 마르틴 지역의 산악림에서 주로 생산되고 내수 및 수출용은 페루의 북부 해안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량 생산에 그치고 있다.

〈그림 2-14〉 페루 양식어업의 주요 지역(2015년 기준)



자료: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p.140 활용

(<http://www.produce.gob.pe/index.php/features/anuario-estadistico>)

페루의 양식어업은 어선 어업에 비해 발전의 역사가 짧지만 내수면 어장의 용이한 접근성(티티카카 호수) 등으로 인하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다양한 어종의 양식 생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새우, 가리비, 송어, 틸라피아, 아마존의 내수면 어종에 한정·생산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양식어업 산업화를 위해 페루 수산당국은 양식어업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는 물론 다양한 업체들에게 양식 허가권을 제공하고 있다.

3. 수산물 가공 및 수출

2015년 기준 페루의 가공 수산물 생산량은 138만 톤이다. 이 중 식용 수산물이 약 43만 톤이고, 비식용 수산물이 약 95만 톤으로 69%를 차지하였다. 이 중 어분 생산량이 85만 톤으로 비식용 수산물의 9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어유가 차지하였다. 연도별 페루 가공 수산물의 생산량을 살펴보면 가공 수산물 생산량은 2011년 이후 연평균 약 14%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페루 비식용 수산물 생산의 감소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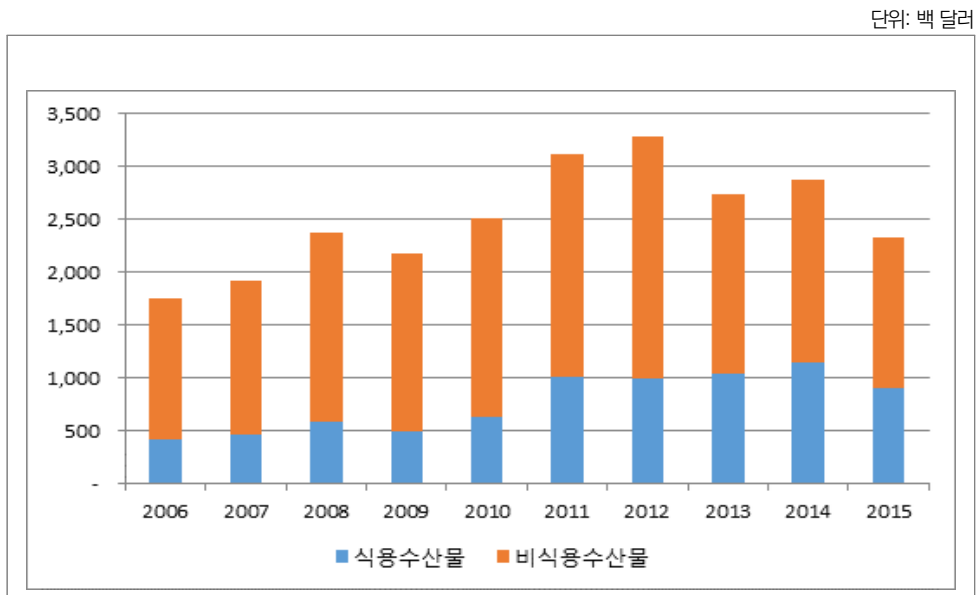
〈표 2-11〉 페루의 가공 수산물 생산량 추이(2011~2015)

단위: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감율
합계(A+B)	2,496	1,521	1,739	1,108	1,378	(13.8)
식용수산물(A)	523	471	450	479	431	(4.7)
통조림	127	71	76	57	58	(17.8)
냉동	379	384	345	393	336	(3.0)
염장훈제	17	17	29	29	37	21.2
비식용수산물(B)	1,973	1,050	1,289	629	947	(16.8)
어분	1,638	854	1,114	527	852	(15.1)
어유	336	196	175	103	95	(27.2)

자료 :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활용 저자 재작성

〈그림 2-15〉 페루 수산물 수출액 추이(2006~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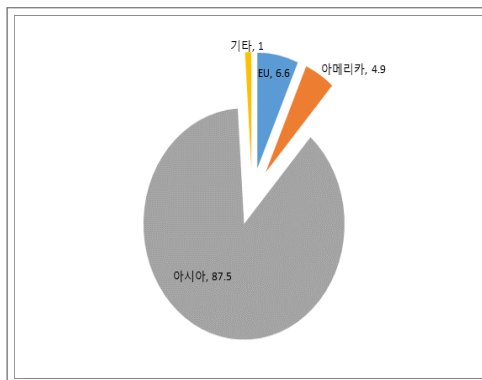
자료: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활용 저자 재작성

(http://www.produce.gob.pe/index.php/features/anuario-estadist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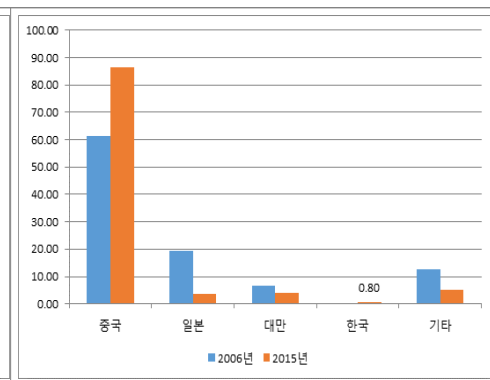
한편 2015년 페루 수산물 수출액은 23억 8,460만 달러로 나타났다. 비식용 수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59%를 차지하였다. 2006년 17억 달러에서 2012년 약 33억 달러로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2015년 23억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물량 기준으로 비식용 수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전체 수출량의 87.5%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은 제1의 수출 대상국으로 2006년 54만 톤에서 2011년 75만 톤으로 치솟았다. 이후 수출량 감소가 이어지다가 2015년 51만 톤을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물량은 크지 않아 전체 아시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0.4~0.8%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2-16〉 비식용 수산물 수출지역



〈그림 2-17〉 비식용 수산물의 아시아 주요 수출 대상국



자료: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활용 저자 재작성

(<http://www.produce.gob.pe/index.php/features/anuario-estadistico>)

제3절 페루 수산분야 주요 정책 및 제도

1. 수산자원

페루 정부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정책은 생태계 보호, 청정기술 사용, 생물다양성 보전, 사회정의 실현,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다섯 가지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어족자원 보호 차원의 페루 수산자원 정책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어획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어로 금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초베타 조업어선에 대한 최대 어획 한도를 지정하고 있다.

최근 페루의 대표적인 수산자원 보호정책은 ‘어선별 최대어획한도(Maximum Catch Limits per Vessel : MCLV)’이다. 2009년 도입된 동 제도에 따라 각 조업어선은 강선(steel vessel)/목선(wooden vessel) 여부, 어획 경력 및 어선의 수용능력 등에 따라 어획 할당량을 다르게 부여받고 있다.

〈표 2-12〉 페루의 수산자원 보호조치

항목	주요 내용
바이오메스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 개시 및 폐장을 법적으로 규정 - 연간 및 계절별 총 어획 한도 제도 도입 - 5마일 이내에서는 생계형 어선만 조업 가능 - 어획시 10% 이상의 어린물고기가 어획되거나 어획 허용 한도에 도달했을 때 어장 조기 폐장 - 어선당 최대 어획 한도(MCLV) 제정
혼획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획 한도 5%(2007년 현재 3.6%) - 최저 그물코 크기 : 1/2인치(12mm)
하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재용량 공식 신고 - 신규 어선의 진입 금지 - 200마일 이내에서 조업시 허가 필요 - 5마일 이내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위성추적장치 부착 - 134개 하역지점에서 24시간 어획 기록 - 규정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벌금 부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부는 매일 웹사이트에 당일 조업허가 어선과 조업금지 어선에 대해 공지 - 가공공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이나 생계형 어선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을 수 없음 - 가공기계나 환경보호 장비에 이상이 있을 시 가공공장은 원료 반입 금지 - 수산물의 훼손을 막기 위해 트럭이나 생계형 어선으로 벌크 수송 금지 - 펌프와 파이프를 통한 생계형 어선의 어획 금지

자료: 홍현표 외,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활성화 방안』, 2011

MCLV 제도 도입 이전에는 50일 이내의 조업기간 동안 전체 쿼터를 채우기 위해 많은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한 사례가 많았다. 페루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MCLV를 도입하여 조업기 중 어선들의 조업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군의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영세 어업의 생산을 장려하고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며 어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2. 어분·어유 가공 공장의 환경 규제

페루 정부는 안초베타 및 어분·어유 가공과 관련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첫째, 어유 및 어분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 및 방출에 관한 최대허용한도(Maximum Permissible Limits : MPLs)’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09년 청정기술도입 정책의 일환으로 배출(effluents)에 관한 최대허용한도제를 도입했으며, 방출(emissions)에 관한 제도는 수년 전에 도입해 페루의 모든 어분 공장에 적용하고 있다.

둘째, 페루의 대표적인 어항인 피스코(Pisco)와 침보테(Chimbote) 항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을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2004년에는 피스코 항구를 대상으로 ‘아프로피스코(Apropisco)’ 제도가 도입되어 피스코 항구 근처 어분공장 에서 나오는 각종 배출물은 1차 처리과정을 거쳐 중앙처리장치에서 정화되어 바다로 방출되고 있다. 2007년에는 침보테에서도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어분, 냉동 및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3. 수산물 소비 활성화 정책 및 투자 장려

국가정책 차원에서 어린이 영양실조 개선을 위해 안초베타의 소비를 장려해 오고 있다. 또한 사회프로그램과 관련해 모든 식자재 구입 시 전체의 8%를 안초베타와 오징어로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를 위해 안초비 통조림 등을 포함한 식용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4. 양식산업 육성 정책

2000년 페루 어업부(현재는 페루 생산부(Ministry of Production) 산하)는 양식업 발전을 위해 ‘양식업 발전 증진과 규제에 대한 법률’(Law No 27460) 및 ‘양식업 규제법’(D.S. No 30-2001-PE)을 제정하고 ‘2001-2006년 양식업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PNDA)’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시행하여 왔다.

페루는 ‘양식업 발전을 위한 국가계획’에 따라 생산부 산하에 관련 업무기구(일반 양식청 등)를 두고 국제기구와의 참여를 통해 국제협력 및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여타 정부기관, 지방정부, 민간, 이해 당사자들을 위한 국가양식업 분야 발전정책을 선도하였다. 그 결과 ‘2010-2021년 페루양식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국가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양식업분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자원 활용, 제도 개선, 인적자원 개발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라는 목표 하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다.

크게 생산, 수출, 소비, 투자, 규제 완화, 역량 강화 등 6개 분야로 분류된 페루 양식어업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식어업 생산은 2021년까지 9만 5,000에서 11만 톤까지 증가시킨다. 둘째, 전체 양식생산량 가운데 2만 5,000~2만 7,000톤을 수출한다. 이와 관련한 수출액이 1억 70만 달러에서 1억 86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양식수산물의 1인당 소비량은 0.86kg에서 0.94kg으로 약 6% 증가시킨다. 넷째, 투자 완화와 관련하여 양식어업 허가를 총 20% 증가시키고 양식지역을 15% 확대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양식어업 역량 강화를 위해 페루 지역 양식 교육, 훈련, 기술 지원, 서버를 강화하고 12개 지방 정부에서 양식어업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6개 시범 양식장에서는 송어, 틸라피아, 아마존 어류를 특화 생산할 예정이다. 양식어업과 관련한 연구 및 기술이전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양식어업을 운영·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페루 생산부의 양식어업 추진전략(2015년 기준)

구분	페루 양식어업 발전 목표
생산	■ 양식어업 생산의 국내외 상업화를 위한 생산성과 생산의 질 강화
	■ (생산) 양식어업 생산량 9만 5,000~11만 톤 유지
	■ (상업화) 양식어업 생산 중 1만 6,000~1만 8,000톤 상업화
수출	■ (수출량) 양식업 생산량 중 2만 5,000~2만 7,000톤 수출
	■ (수출액) 양식업 수출액의 1억 70만~1억 86만 달러 유지
소비	■ (소비) 양식수산물의 1인당 소비량 0.86→0.94kg 증가
투자	■ (투자) 민간 투자 증가
규제완화	■ 양식업 허가: 중소 및 대형 양식업체 내륙과 해양의 허가 총 20% 증가
	■ 양식업 발전 위한 가능 지역 15% 증가
역량강화	■ 국내 양식업 발전 투입재 개선(종자 등)
	■ 양식업 생산과 상업화를 위한 교육, 훈련, 기술지원 서비스 강화
	■ 12개 지방 정부에 양식업 훈련 및 확장 프로그램
	■ 6개 시범 양식어장 운영(특히 각 시범 운영은 송어, 틸라피아, 아마존 어류 등 특화 운영)
	■ 양식 어종을 위한 양식생산 규정 마련
	■ 4개 양식업 보건 센터 운영
	■ 연구 및 개발 증진, 양식업 적응과 기술이전 개선
	■ 양식업 개선을 위한 정책 입안, 이행, 평가를 위한 전문가 양성, 이들 능력 개발과 제도 및 조직 개선

자료: 페루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현황과 한계 그리고 국제협력 연구, 중남미연구, 2016 제35권 4호, p. 128, 표 6 인용

그러나 양식어업 국가발전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 정도는 이웃 국가인 칠레와 비교해도 상당히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잠재적 생산성이 높은 일부 어종(예: 가리비) 이외에는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가리비양식이 새우양식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지나치게 단일 품종에 집중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가리비양식에의 투자 증가 및 산업 집중의 문제는 양식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외에 페루 새우양식은 에콰도르와 인접한 북쪽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송어양식은 안데스 유역에서 영세업자들 위주로 발전하고 있어 수출과 연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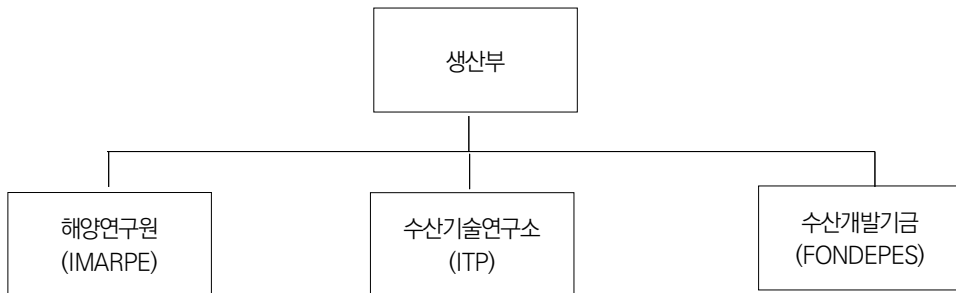
무역조건 개선, 자본화 혹은 상업화로 연결하기 어려우며 기술 및 자본 투자의 한계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4절 페루 수산업 관련 거버넌스 및 법률

1. 페루 수산업 거버넌스

페루 수산업을 관장하는 주요 부처는 생산부이다. 법률 No 27779에 따라 설립된 생산부는 해양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 보호, 어업 활동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 및 승인, 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페루 생산부 내에는 수산부문의 연구개발사업, 수산식품사업, 수산발전기금사업 등을 위해 IMARPE(페루해양연구원), ITP(수산기술연구소), FONDEPES(페루수산개발기금) 등의 기관들이 설립되어 있다.

〈그림 2-18〉 페루의 수산관련 기관



우선 페루의 해양연구원(IMARPE)은 우리나라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이 해양 수산 R&D를 담당하고 있으며, 총허용어획량(TAC)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수산기술연구소(ITP)는 페루의 수산가공기술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생산부 수산청 산하의 정부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어촌어항협회 등의 기능들을 부분적

으로 통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동 기관은 수산물의 양륙부터 소비 과정에 걸쳐 연구, 식품개발, 품질검사, 어항 관리, 관련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TP의 연구파트는 3개 부서로 구분되는데, 주로 수산식품의 개발과 가공과정에서 나타나는 품질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물 품질관리 등 행정감독 기능은 SANIPES가 담당하고 있다. 페루 수산가공 공장 등의 품질 및 위생 관리를 감독하는 자들은 검사원이며, 세계 표준인 CODEX 기준에 근거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다.⁸⁾ SANIPES의 품질관리의 목표는 페루의 수산가공물의 품질 기준을 CODEX 기준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페루수산개발기금(FONDEPES)은 소규모, 영세 어업인의 교육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양식어업, 기금 사업을 담당한다. 현재 페루 전역 현지 및 총형 6개의 양식연구소를 운영하며, 친어 관리 및 시험양식을 하고 있다.

2. 페루 수산업법

페루 「수산업 일반법령 N° 25977」은 어업활동 규제, 식량 및 고용, 소득원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수생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 경제 수익 최대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다.⁹⁾ N° 25977의 하위법령으로서 「수산업 일반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Supreme Decree N° 012-2001-PE)」은 N° 25977을 보조하고 다음과 같은 각 어종에 대하여 입어, 쿼터 배정·절차, 수산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⁸⁾ 아직 페루의 전통적인 수산업 구조의 장애가 있어서 점차 국제표준인 CODEX 맞추어가고 있으며, 거의 90% 수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음

⁹⁾ 김순성,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2016

1) 대왕오징어

대왕오징어에 관한 수산 관리 규정¹⁰⁾은 대왕오징어의 생물학적 개체군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 생산에 따른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왕오징어에 대한 규칙¹¹⁾은 외국어선 입어, 최대허용가능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페루 생산부는 2011년 10월 6일 대왕오징어 조업과 관련한 어업법¹²⁾을 개정·공포하면서 자국 어선에 대왕오징어 쿼터를 우선 배정하고, 잉여분이 있는 경우에만 외국 국적 어선에 공개 입찰하여 쿼터를 배정하였다. 이는 대왕오징어의 조업도 안초베타 조업과 같이 페루 국적 선단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메를루사(원양대구)

생물학적 개체군 특성과 책임 있는 수산업,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원양 대구 어업의 통합 개발 증진과, 동 자원 및 관련 종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원양 대구의 수산관리보장에 대한 규정을 담은 장관결의안(혹은 부령으로서 Ministerial Resolution N° 236-2001- PE)도 존재한다. 페루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약’을 채택하였으며 메를루사 수산관리 법규(Supreme Decree N° 016-2003- PRODUCE)를 마련하였다. 해당 법은 메를루사 및 관련 종에 대한 관리를 통해 중단기적으로 자원을 회복하고 추후 지속가능한 어획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¹⁰⁾ Supreme Decree N° 013-2001- PE

¹¹⁾ REGLAMENTO DE ORDENAMIENTO DE LA PESQUERIA DEL CALAMAR GIGANTE O POTA (DOSIDICUS GIGAS)

¹²⁾ Reglamento de Ordenamiento Pesquero, Supreme Decree, Decreto Supremo 014-2011

3) 다랑어

2004년에 마련된 다랑어 수산관리 법규(Supreme Decree N° 032-2003-PRODUCE)는 페루 영해 및 공해에서 다랑어 및 관련 종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문화된 국가 다랑어 선단을 구축하고 페루를 고도 회유성 어종과 이들의 보호, 통합관리 연구에 대한 소구역 및 지역, 지역수산기구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다랑어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4) 쾰치 및 고등어

쾰치 및 고등어 수산 관리 법규(Supreme Decree N° 011-2007-PRODUCE)는 쾰치 및 고등어 자원의 합리적인 어획을 촉진시키고, 수산 일반법 및 관련 조항의 원칙 및 규칙에 따라 해양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수산업을 식량 및 고용, 외화 획득원으로서 다각화 및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다.

3. 페루 수산분야 외국인 투자 관련법

1) 외국 어선의 입어

외국 국적의 어선이 페루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47조와 48조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기입되는 정보는 선주, 국적, 어종별 쿼터, 페루 영해에서 조업 허가과 관련해 수산부와 체결한 계약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 국적 어선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 국적 어선이 허가받기 위해서는 어업 연구, 페루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어업, 페루 수산부 목록에 적시된 종에 대한 어업, 외국 및 국제기구와 어업협약 또는 수산부장관과 외국기업간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어업활동 중 하나를 수행하거나 페루 자국 어선이 이용하지 않는 TAC의 잉여분에 대하여 어업활동을 하며 페루 국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페루는 어선의 어창 용량 32.6m³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수산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 국적 어선의 어업허가세는 120일 넘

지 않는 범위에서 3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현행법 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조업 시작 전에 지급 보증(BOND)을 제출해야 하는데, 어업허가세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페루 영해에서 조업하는 외국 국적선박들은 제68조에 의거,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¹³⁾해야 하고 IMARPE가 지정하는 과학기술감시자들 선상에 반드시 승선시켜야 한다. 그리고 선주는 해당 감시자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상 승선 일수에 따라 선정한 보수를 IMARPE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즉, 외국 어선이 과학기술감시자에 대한 급여까지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승선하는 종업원의 30% 이상 페루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현행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표 2-14〉 페루의 입어로 및 양자협약 또는 합작투자 조건

입어로(Licence fees)	양자 협약 또는 합작 투자 참여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소유주는 어업 허가 수수료의 25%에 해당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제81조) (1994년 1월 14일, 최고시행령 No. 01-94, 수산 일반법 시행) ■ 트롤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비: 미화 2,000달러(1년 유효) - 운항(Navigation) 허가 수수료: 총등록톤수 당 20달러 (1년 유효) - 어업 허가 수수료: 순톤수당 미화 250달러 (1년 유효) (1984년 9월 19일 최고시행령 No. 012-84-PE) (1990년 9월 27일 장관결의안 No. 522-90-PE) ■ 다랑어 냉동 어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비: 미화 2,000달러 (180일 유효) - 운항 허가 수수료: 총등록톤수당 미화 20달러(180일 유효) - 어업 허가 수수료: 순톤수당 미화 160달러(180일 유효) (1984년 7월 6일 최고시행령 No. 008-84-PE) (1990년 9월 27일 장관결의안 No. 522-90-PE) ■ 다랑어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어로 : 6개월 동안 US \$500/NRT (1994년 3월 16일 장관지시 No. 110-94). 다랑어 및 종에 대한 어업 계획 승인) 	<p>페루 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외국 어선들은 현지 양륙료, 수수료의 지불과 같은 보상과 연구, 훈련 및 수산업 기반시설과 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즉 임대, 재정리스, 합작투자 등을 통해 운영될 수 있다.(제49조) (1992년 12월 21일 수산일반법 제25977호)</p> <p>어업협정 또는 상기 조건을 포함하는 다랑어 어업에 대한 기타 국제협약 : 그 수, 허가선박에 대한 설명; 소규모 모형제(artisanal) 어업을 위한 장비 또는 재료 차원의 보상, 수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선박 기국의 시장에 대해 페루 수산제품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 어업 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페루 법안 준수. (1994년 3월 16일 장관지시 No. 110-94, 참치 및 종의 어업 계획 승인)</p>

자료 : FAO, Coastal State requirements for foreign fishing - PERU, <http://www.fao.org/docrep/V9982E/v9982e3b.htm>

13) 단, 회유성 어종을 어획하는 경우 수산부가 행정부령으로 면제할 수 있음

〈표 2-15〉 페루 해역내 외국국적 어선의 허가 관련 법적 조항

- 외국 국적어선의 운항을 위해서는 어업 허가가 필요하다.(제43조)
- 다음의 경우 외국 국적 어선은 페루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 어업 연구
 - 페루 기업과 계약 체결한 어업
 - 페루 수산부(Ministry) 목록에 적시된 종에 대한 어업
 - 외국 및 국제기구와 어업협약 또는 수산부장관과 외국 기업간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어업활동(제48조).
 - 페루 자국 어선이 이용하지 않는 TAC의 잉여분에 대하여 어업활동을 하며, 페루 국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제47조)

〈1992년 12월 21일 수산일반법 No. 25977〉

- 페루 영해에서 과학기술연구를 위한 어업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4조)
- 12개월 동안 유효한 어업허가는 종내에는 갱신 가능하다.(제79조)
- 선주는 조업 시작 전 취소할 수 없고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으로 공동 보증을 하는 선주(제80조)
- 승무원의 30%는 페루 국적이어야 한다.(제84조)
- 페루산 수산물의 자유 시장 접근에 합의한 국가(제85조)
- 국내어업활동허가가 명시하는 일반적인 자료와 함께 소유자 및 선박의 국적, 법정 대리인, 어획할당량과 노력, 부처가 승인한 계약조건

〈최고시행령 제01-94, 1994년 1월 14일, 수산일반법 시행〉

- 트롤어선 :
 - 어업 허가, 항해 허가 및 등록은 1년 동안 유효하다.
 - 선주 또는 outfitter는 어업 개시 전 선박 검사를 위해 어업부 및 국방부에 2명의 검사원의 출입을 요청해야 한다.
 - 선박은 중앙부 양측에 국제 무선 호출 부호를 표시해야 한다.
 - 리스, 재정리스 및 파트너십의 경우 페루 자국 시장 공급을 위해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을 제공하는 협약 (1984년 9월 19일 최고시행령 No. 012-84-PE, 1989년 11월 27일 최고시행령 No. 015-89-PE)
 - 다랑어 냉동 어선:
 - 항해 허가 및 등록은 180일 동안 유효하다.
 - 어업 허가는 임대, 금융 임대 및 12개월 동안 유효한 파트너십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제외하고는 180일 동안 유효하다.
 - 검사원에 관한 규정, 국제 채권, 담보 및 국내시장에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제공할 의무는 트롤 어업과 동일하다. (1984년 7월 6일 최고시행령 번호 008-84-PE, 1984년 11월 27일 최고시행령 No. 015-89-PE)
 - 다랑어 선망어업과 연승어업:
 - 연승 및 어류유집장치와 같은 선택적 어업 장비를 사용하는 어선 허가는 수산부 장관이 선택한다.
 - 선망어업 어망 최소 크기는 100mm(4인치)이다.
 - 선망어선은 다랑어를 어획하는 동안 다른 해양 포유동물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정 장치 및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조업은 30해리 이원에서
 - 이동시 어획물을 저장할 어구 장착
 - 어선의 식별 표시(identification markings)
 -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선박 장비
 - 승무원의 30%는 페루 국적이어야 한다.
 - 어획량의 전제는 장관이 승인한 만이나 항만에서 이뤄져야 한다.
- (1994년 3월 16일 장관지시 110-94. 다랑어 및 관련 종에 대한 어업 계획 승인)

제5절 시사점

이상의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페루 수산업의 특징 및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페루 수산업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바탕으로 자국 GDP의 0.7%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2011~2015년) 어업 생산량이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2.3%의 감소세를 기록, 2015년 485만 톤을 기록함에 따라 페루 정부의 수산자원 보존 조치 노력 등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 페루 수산업은 소규모 어업과 산업형 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형 어업은 대형 건착망 어선으로 안초베타, 고등어 등을 어획한다. 소규모 연안어업은 페루 수산업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며 대부분 목선 또는 비동력 어선으로 페루 연안 인근에서 조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관심 있어 하는 대왕오징어도 페루 연안의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낚시 등의 방법으로 어획하고 있다. 대왕오징어가 회유 등으로 서식지역이 근해지역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 연안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근해까지 조업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제협력을 통해 페루 소규모 어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 및 교육훈련을 통해 생산성 증가에 대한 페루측의 니즈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페루 수산업 생산량 485만 톤 가운데, 비식용 수산물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비식용 수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분은 전체 수출의 7%를 차지할 정도로 페루의 주요한 수출 품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국 국민의 수산물 소비 확대 정책에 따라 점차 페루 정부가 식용 수산물의 쿼터를 확대하고 있어 식용 수산물의 생산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페루 양식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 페루 양식어업은 전체 어업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가리비, 틸라피아, 송어 등 일부 품목 생산에 한정되어 있지만 페루 정부의 양식어업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어선 어업 지원 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의 페루 양식어업 발전 수준에서 2021년 양식어업 발전 방안이 제시한 양식 수산

업의 상업화, 수출량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페루 양식어업의 역량 강화가 상당히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페루 경제협력의 주요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페루 해역의 외국 국적 선박의 입어는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페루 EEZ 내의 외국 국적 선박은 과학기술연구 목적인 경우, 제3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기업간 어업협정 체결시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페루 자국 어선이 이용하지 않는 TAC의 잉여분에 대해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현재 페루 EEZ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에콰도르의 다랑어 연승 어선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외국 국적 어선의 입어가 수산자원을 고갈시킨다는 비난이 외국 국적 어선의 EEZ 입어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단순 입찰방식에 따른 입어보다는 페루 해역의 미이용 수산자원 조사 및 연구 목적의 시험 조사선을 입어시키고 점진적으로 기업간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제3장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페루 시장진출과 현안 이슈

제1절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페루 진출 배경

원양오징어어업은 크게 유자망어업과 채낚기어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어장은 뉴질랜드, 포클랜드, 페루이다. 1970년대 뉴질랜드 수역에 우리나라 일부 어선이 콩치붕수망어업과 겸업 형태로 오징어조업의 맥을 이어오다가, 1980년대 중반 포클랜드어장으로 전부 이동하였다. 포클랜드수역의 오징어채낚기어업은 1984년에 시험조업을 거친 후 1985년부터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였고, 1989년에는 55척이 출어하여 11만 8,000톤을 어획하였다. 1990년 이후에는 영국이 오징어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해당 해역에서 어선과 어기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오징어유자망어업은 포유동물과 바닷새 등을 무차별 어획한다는 이유로 UN총회결의에 따라 1993년부터 조업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북태평양 오징어어업에 의존하여 생산하던 가공용 오징어 전량에 대한 대체 어장 개척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90년 페루의 200해리 수역 내에 오징어채낚기어선이 진출하였다.

〈표 3-1〉 우리나라 어업별 해외어장 진출현황(2015년 말 기준)

구 분	척 수	진 출 수 역
계	289	
참치선단	177	남태평양(PNG 등), 대서양, 인도양, CCSBT 해역
오징어선단	24	남서대서양(포클랜드 어장), 페루
명태트롤선단	4	러시아(북서베링해 등)
콩치	21	태평양
기타	63	뉴질랜드, 앙골라, 포클랜드, 나미비아
원양어선단 진출 연안국 (19개국)	· 태평양(8개국): 뉴질랜드, 피지, 키리바시, PNG, 타이티, 솔로몬, 마이크로네시아(FSM), 러시아 · 대서양(8개국): 앙골라, 포클랜드,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수리남, 나미비아 · 인도양(3개국): 세이셸, 모잠비크, 모리셔스	

자료: 2016 원양산업 통계연보 참조 저자 작성

그러나 페루 정부가 200해리 EEZ를 선포하고, 외국 어선의 조업은 30해리 이원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어장을 축소하는 등의 조업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페루 자국 수역 내에서 서식하는 오징어자원에 대하여 TAC를 시행하고 이를 한국, 일본, 아르헨티나를 대상으로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국가간·업체간 경쟁을 촉발시켰다. 또한 페루 정부는 입어와 연계하여 육상의 선원복지증진시설과 교육시설 설립 요청 등 경제협력을 요청하였다.

〈표 3-2〉 우리나라 원양오징어 채낚기어업의 주요국 입어조건(2005년 기준)

국 별	주 요 내 용
포클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어조건 : 자원자국화 정책으로 단순 입어 축소, 합작 및 용선 입어 비율 확대 · 입어내용 : £2,769,526(2005년) / 32척 입어 ※ 국제순톤수와 조상기 대수 감안 척당 입어로 산정
뉴질랜드 (트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어조건 : 단순입어 불허, 합작투자·협력입어 허용/TAC 설정 어업자별·어선별 ITQ 할당, 자국민에게 고정 쿼터 배정, 외국어선은 어종별 입어로 2배 이상 차등 부과 · 입어내용 : 11척 입어(대방사 쿼터량 민간 배정)
페 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어조건 : 오징어 단순입어 허용, 연 2회 국제경쟁입찰 실시(어획량, 입어로) 연안 30해리 이원의 수역만 조업 허용 · 입어내용 : 2척 입어(2005년) · 기본입어로 : 월 \$65/어선 순톤수 · 추가입어로 : 어획량 톤당 \$15(라운드 제품 기준) ※ 정식입찰이 아닌 임시법령에 의해 입어 중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어업 50년 발전사』, p.66,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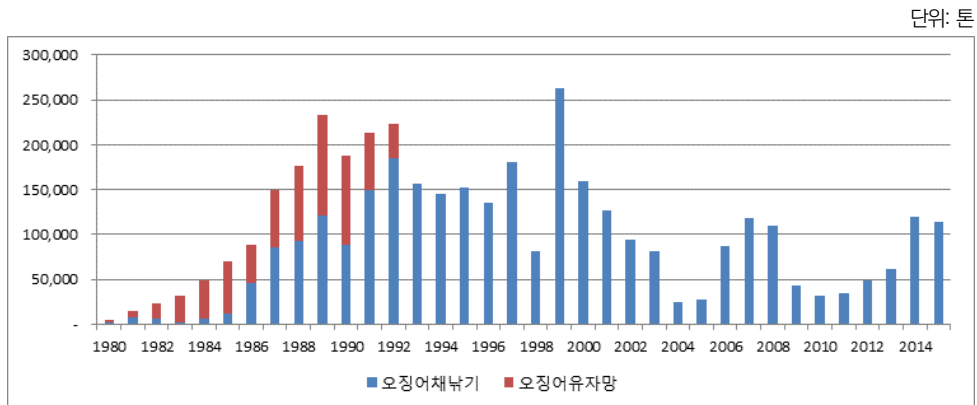
제2절 대페루 원양어업 진출 현황

1. 대페루 수역 원양어업 진출 현황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페루 어장은 1992년 북태평양 공해 지역 오징어유자망어업 중단에 따른 대체 어장 개발 차원에서 이뤄졌다. 남서대서양과 페루 어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어선 수는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에는 124척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후 어선 수가 감소하여 2015년에는 24척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징어채낚기어업의 생산량은 1999년에 최고 26만 3,000톤을 기록한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약 7만 5,000톤을 생산하였다.

〈그림 3-1〉 우리나라 원양오징어 생산량 추이(1980~2015년)



자료: 2016 원양산업 통계연보 참조 저자 작성

포클랜드 오징어 자원의 특성 및 분포

포클랜드 해역에서 어획되는 오징어는 살오징어목의 빨강오징어과와 꼴뚜기과이다. 빨강오징어과는 다시 3개의 아과, 즉 일렉소오징어아과, 살오징어아과 및 빨강오징어아과로 나누어진다.

일렉소오징어아과에 속하는 아르헨티나 짧은지느러미오징어(Patagonia 대륙붕)은 우리나라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전체 어획량의 8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여도가 높은 어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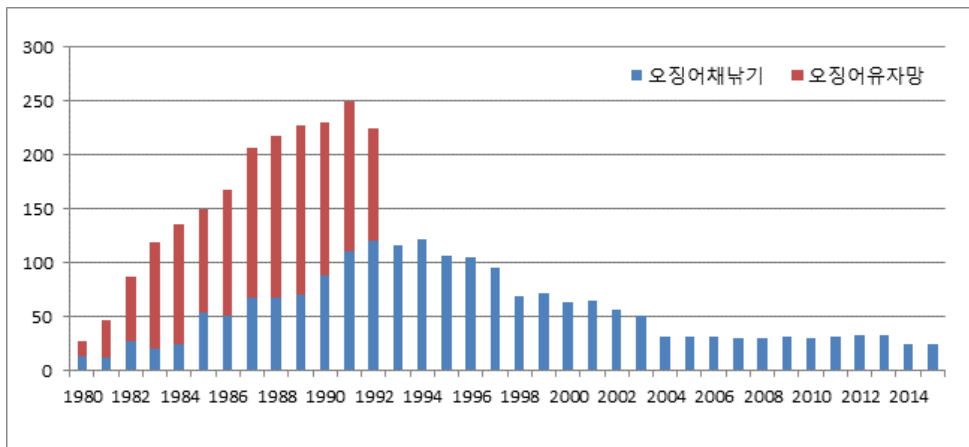
남서대서양 해역은 포클랜드해류와 브라질해류 및 이 두 해류의 유속에 의해 파타고니아 대륙붕수가 분포하고 있어서 연중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계절적인 변동이 있으나, 12월에는 주로 남위 45°~46°, 서경 60°~61° 정도에서 어장이 형성되고 4월부터는 남위 49° 이남의 해역에서 포클랜드 북서부까지 중심어장이 형성된다.

또한 아르헨티나 짧은지느러미오징어는 분포 범위가 매우 넓어 페루를 포함하여 남미 서안에도 분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짧은지느러미오징어와 참갈구리오징어가 어획되는 페루 근해 오징어어장은 3°~7°S, 81°~83°W 정도에서 주로 어장이 성립되고, 중심어장은 5°~7°S이다. 페루 근해에는 아메리카대왕오징어도 서식하고 있는데, 이 오징어는 캘리포니아에서 남미 남단까지 걸쳐서 분포하며, 남태평양 남부에서의 잠재 자원량은 100만~15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메리카대왕오징어의 서식수온의 범위는 9~25℃로 광범위하나, 적정 어획수온의 범위는 15~21℃이다.

페루 해역의 오징어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면 오징어채낚기어선이 처음으로 진출한 1990년에는 473톤의 생산량을 시작으로 1991년부터 매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4년에는 6만 6,000톤의 최고 어획고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5년부터는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1998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어장이 분산되어 출어조차 하지 못했다. 1999년에는 11척이 출어하여 2만 톤을 어획하였다. 2000년에는 2척이 출어하였으나, 조업 실적이 좋지 않아 2001년 이후 철수하였다가 2005년에 다시 3척이 출어하였다. 페루의 200해리 내측 수역, 남위 6°~12°, 서경 78°~82°에서 조업하였으나, 여전히 조업 실적이 부진하였다. 이후 2010년 10척이 페루 내측 수역과 공해에서 각각 조업하여만 4,000톤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페루 공해 지역에서만 조업이 이뤄지면서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여 2013~2014년 생산량은 2010년 생산량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6년에는 2척이 페루 해역 공해에 입어하여 3,824톤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그림 3-2〉 원양오징어업종의 어선수(1980~2015)

단위: 척



주: 상기 척수는 허가기준 척수임

자료: 2016 원양산업 통계연보 활용 저자 재작성

〈표 3-3〉 페루 수역 원양오징어업종(채낚기)의 생산량과 입어척수(2001~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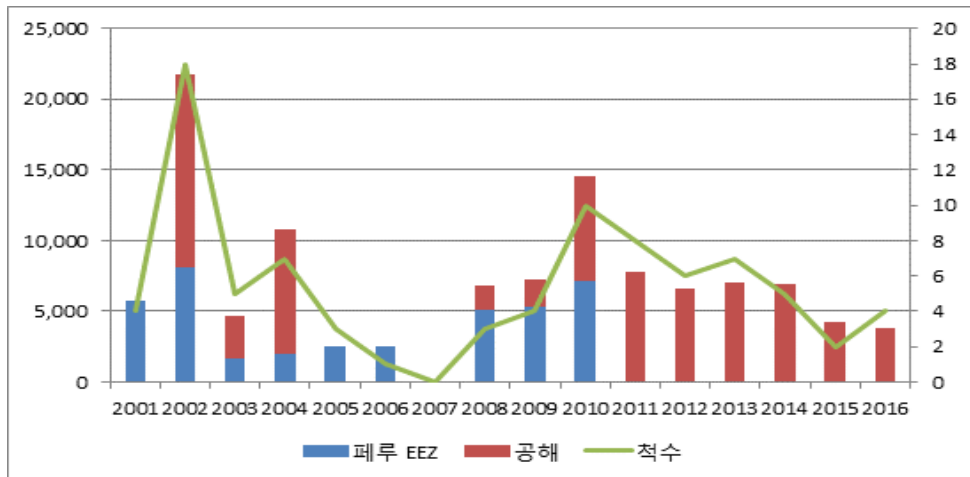
단위: 톤, 개사, 척

구분	생산량			조업회사	조업척수		
	페루	공해	합계		입어	공해	소계
2001	5,797	-	5,797	2	4	-	4
2002	8,083	13,672	21,755	11	12	6	18
2003	1,681	3,041	4,722	4	2	3	5
2004	2,026	8,761	10,787	6	1	6	7
2005	2,519	-	2,519	2	3	-	3
2006	2,485	-	2,485	1	1	-	1
2007	-	-	-	-	-	-	-
2008	5,131	1,644	6,775	2	3	-	3
2009	5,264	1,957	7,221	2	4	-	4
2010	7,182	7,324	14,506	7	6	4	10
2011	-	7,746	7,746	4	-	8	8
2012	-	6,655	6,655	3	-	6	6
2013	-	7,067	7,067	4	-	7	7
2014	-	6,977	6,977	3	-	5	5
2015	-	4,262	4,262	1	-	2	2
2016	-	3,824	3,824	2	-	4	4

자료: 한국원양산업협회 내부자료

〈그림 3-3〉 페루 수역 원양오징어업종의 생산량과 입어척수(2001~2016년)

단위: 톤, 척



2. 대페루 수산기업 진출 현황¹⁴⁾

1) 개요

2010년 기준 페루에서 오징어 가공업체 수는 약 50여 개로 추정된다.¹⁵⁾ 이중 약 20%가 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며, 나머지는 중국계와 스페인계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대왕오징어 가공업체는 약 10개로 주로 파이타(Paita) 지역, 탈나라(Talara) 지역, 리마(Rima) 등 페루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파이타와 탈나라는 대왕오징어의 최대 산지이자 파이타항에 페루 북부 유일의 MAERSK의 정기선이 있어서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고, 산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전기·수도 등 산업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다.

페루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는 대왕오징어 가공업체는 페루의 수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인기업들의 총자본금은 2,084만 달러이며, 연간 매출액은 약 6,489만 달러로 추정된다. 또한 현지 한인 가공업체의 평균 자본 대비 매출액은 3.1배로 건전한 편이며 기업당 평균 자산 규모는 208만 달러, 평균 매출 규모는 649만 달러 수준이다. 업체당 평균 사무직 15명, 생산직 282명을 고용하고 있어 약 3,000명의 고용이 이뤄지고 있다.

〈표 3-4〉 페루의 대왕오징어 가공공장(한인업체) 개요

기업명	장소	자본금	매출액	고용인원	
				사무	생산
Dawon	Paita	5,000	10,000	9	620
PERUCO	Rima	1,000	4,000	25	150
Ultra Frio	Rima	1,000	500	6	20
Kope E.I.R.L.	Arequipa	700	1,875	8	120
FREEKO PERU	Paita	10,000	5,000	2	100
Pesco Marine	Talara	500	13,000	20	450
MIK Carpe	Paita	300	7,500	7	200
Pacifico Sur	Tacna	60	3,700	16	180
Inhope	Paita	275	7,811	22	181
CNC	Paita	2,000	11,500	30	800

자료 :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p.91, 표 3-15

14) 홍현표 외,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p.90-100의 내용을 인용, 요약함

15) 페루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2) 업체별 현황

① INHOPE

2003년 7월에 페루 파이타의 해군기지를 빌려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7년 2월에 공장을 설립하였다. INHOPE는 원료기준 일일 최대 150톤의 가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냉동실(63T/D), 냉동냉장보관(600톤, 완제품 기준)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인근의 원료 공급업자(객주)로부터 대왕오징어를 구매하며 전량 반가공 형태로 한국, 중국, 일본, 태국으로 수출하였다. 한국 수출이 전체 수출량의 35~40%를 차지하며 주로 대왕오징어의 건조 몸통¹⁶⁾, 다리, 자숙 귀를 수출한다. 대중국 수출은 35~40%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수출 품목은 대왕오징어 몸통, 자숙 귀, 다리이다. 전체 수출량의 15~20%는 오징어 다리(빨판 제거, 장족 제거, 개별 다리로 하여 20kg으로 포장) 등을 주요 상품으로 하여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② MIK

MIK는 대왕오징어를 1차 가공(반가공)하여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 동결 60T/D, 건조기 10T/D, 냉동냉장보관 1,000톤 정도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 상대국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이다. 한국 수출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대왕오징어 건조 몸통이 주력 수출품이다. 대중국 수출은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보다 약 10~15% 높은 단가로 수출되고 있다. 대왕오징어의 수출은 거대 수요 시장인 중국이 있기 때문에 판로 확보 경쟁이 치열하지 않지만 어획량의 변동이 심한 것이 기업의 주요한 애로 사항으로 나타났다.

③ DAEWON SUSAN

DAEWON SUSAN은 페루의 한국인 수산가공업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으로 봉장어어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2000년 중반부터는 대왕오징어 반가공

¹⁶⁾ 오징어의 다리와 귀를 제거한 몸통 부분의 껍질을 벗겨내고 삶은 것으로 하얀색임. 조미하거나 진미채로 가공하기 편리하게 반가공한 것을 의미함.

원료 수출도 병행하고 있다. 동 기업은 봉장어 연안통발어선 9척을 소유하고 있어, 12월부터 익년 3월(페루는 여름임)까지 봉장어를 어획·피레트 가공을 하여 한국과 일본에 수출한다.

객주로부터 대왕오징어 원료를 구입하는 동시에 자사 봉장어 연안 통발 어선 9척을 이용하여 대왕오징어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어종별로 발급받은 봉장어와 대왕오징어 허가로 페루 EEZ에서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어종의 성수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봉장어의 경우에는 통발, 오징어의 경우에는 집어등과 낚시를 병용하고 있다.

④ PESCO MARINA

페루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대왕오징어 업체는 주로 가공에 집중하고 원료는 외부에서 조달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PESCO MARINA는 대왕오징어의 어획(원료 조달)에서 가공까지 수직통합적 경영을 하고 있다. 즉, 원료의 산지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탈나다 연안에 입지해 있으며 자사 소유의 어선으로 대왕오징어 등을 어획하여 바로 가공공장으로 양육하여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대왕오징어와 봉장어를 주력 상품으로 하여 한·중·일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양식생산되는 가리비도 소량 수출하고 있다.

제3절 페루 어장 재진출 관련 업계 의견 조사

페루 공해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우리나라 원양업체를 대상으로 페루 조업시 애로 사항, 향후 EEZ 조업 가능 시 조업 희망여부, 페루 재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업 애로사항에 대해 A사는 어획물 해상전재 및 유류 공급의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페루 해역 자원량 감소로 인한 어획량 확보의 어려움을 두 업체 모두 공통 문제점으로 언급하였다. 향후 EEZ 조업 가능 시 조업 희망여부 질문에 대해서 B사는 국내 어가 안정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페루 재진출을 위해 업계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A사는 한-페루 협력

추진 시 선행조건으로 ‘페루 해역 내 원양선박의 안정적 입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페루 선원의 안정적 수급을 강조하였다. B사는 페루산 대왕오징어 국내 어가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향후 EEZ 조업 가능 시 조업 희망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A사는 원산지가 ‘페루산’이 아닌 ‘원양산’으로 인정되는 조건하에서만 조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B사는 국내 어가 안정 확보를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페루 재진출을 위해 업계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A사는 한-페루 협력 추진 시 선행조건으로 ‘페루 해역 내 원양선박의 안정적 입어’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페루 선원의 안정적 수급을 강조하였다. B사는 페루산 대왕오징어 국내 어가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페루 EEZ 입어가 가능할 경우 A사는 조업 희망 어선 척수는 2척이고 과거와 동일하게 입어로 납부 및 생산물 원산지를 원양산(내국화물)으로 변경이 가능할 때 입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EEZ 입어 시 생산량 증가는 분명히 예상되지만 국내 오징어 반입 시 가격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오징어 어가의 안정적 유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질의내용	A사	B사
· 페루 및 인근해역에서 조업 시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루 공해상 조업 시 한국조업선 척수가 매우 적고, 중국/대만선의 척수가 대부분임. 운반 선사를 통한 어획물 해상전재, 해상유류공급시 중국/대만어선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있음. → 전재/유류 지원에 따른 조업손실(어획량 감소) → 해상전재 불가시 육상 양륙을 위해 항구 입출항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조업손실(어획량 감소) · 페루 공해상 조업은 변화하는 어장환경으로 인해 어군이 주로 연안으로 밀집, 공해상은 어군 감소로 인하여 조업량 불확실(안정적인 제품생산/수급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어지역 비교 어획량 감소 출어 조업 경비 투자한 만큼 실 이익이 없음 → 안정적 어가 유지 필요

질의내용	A사	B사
· 페루 EEZ 입어 허가가 가능해질 경우 조업 희망여부	· 페루 EEZ 입어허가 가능 시 조업 희망 2척	· 페루 입어 조업 시에는 공해상해역(200해리) 비교하여 어획량은 증가하겠지만, 국내 판매 소모량 한정으로 어가하락으로 이어지고 운항 경비 손실 등이 우려되며, 국내 판매의 어가 안정이 뒷받침 된다면 채낚기어선 선사의 페루어장 대왕오징어 조업에 투자가치 있음
· 페루 협력사업시 고려사항	· 한-페루 간 어업협력사업의 체결/추진 시 선행 조건으로 원양선박의 안정적 입어가 가장 필요함 · 페루수역 재입어가능시 현지 페루 선원 고용이 수반되어야 함. 페루 선원의 안정적 수급이 필요	· 페루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우려로 페루 어민은 타국 선박 입어허가 반대가 있었고 대왕오징어 페루산, 칠레산, 중국산 수입으로 국내 판매 어가가 하락하여 투자가 불투명함 · 절대적 어가형성이 뒷받침 되는 것이 최선책으로 안정적 어가유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제4절 주요국의 페루 어장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 사례

1. 스페인

스페인 1970년대까지 원조를 받던 나라였으나 1991년 OECD/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 규모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조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2013년에는 전체 DAC 원조 비중의 0.7%인 약 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스페인의 ODA 정책은 1998년 국제개발협력법이 마련되면서 법적인 체계를 마련하였고, 4개년 개발협력 마스터플랜을 발표되고 있다. 스페인의 대외 원조는 빈곤 퇴치, 국제 개발협력의 공동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 대상협력국 축소,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다자원조, 인도주의적 ODA를 강조하였다. 또한 개발재원의 집중과 원조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협력대상국 수를 56개국에서 50개국으로

축소시켰다.

스페인 ODA의 4개 특별집중 분야는 ① 식량위기, ②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기후변화, ③ 성 평등, ④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등 혁신적 금융재원 모색이다. 중점지원국 중 중남미 국가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과거 식민지라는 국가간 특수한 관계로 인해 합작투자나 금융 지원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¹⁷⁾.

〈표 3-5〉 스페인의 지역별/그룹별 중점지원국 현황

	그룹 A	그룹 B	그룹 C
성 격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ODA 필요 국가군 (저개발, 저소득군)	제한적 분야에서의 개발이 필요한 국가군	개발공고화 부문에서 협력이 필요한 국가
라틴아메리카	콜롬비아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파나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쿠바
마그레브/중동	이라크, 레바논	모로코, 모리셔스, 알제리, 팔레스타인	시리아, 튀니지, 이집트, 요르단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적도기니, 수단, 기니비사우, 감비아,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세네갈, 케이프베르데, 니제르	나미비아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자료: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p. 388 표 9-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스페인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의 주요 목표는 7개로 구분된다. 첫째 어족자원 평가기반 구축, 둘째 해양생태계의 정보 개선, 셋째 지속가능한 수산업 개발, 넷째 분야간 정보 및 기술 교류, 다섯째 과잉 어업의 관리 강화, 여섯째 어업인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위생 개선이다. 이와 관련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스페인의 대페루 ODA 사업은 총 93건(약 1천 3백만 불 규모)이며, 어업 및 양식업 개발(54건), 수산 교육 및 훈련(21건), 수산연구(7건), 수산정책 수

¹⁷⁾ 중남미 지역은 EU 회원국이나 DAC 전체로 볼 때 평균적으로 전체 원조의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스페인의 경우 1980~90년대는 4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2000년대에도 30%를 넘는 높은 비중을 기록함

립(6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특히 스페인 환경해양부(MARM)와 페루 수산연구소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산연구 R&D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페루 심해 어장 및 해양생태계 조사를 목적으로 양국의 연구진 19명이 참여하고, 스페인의 수산자원조사선(Miguel Oliver)을 이용하여 페루 Huarmey-Pisco 해역의 수심 200미터에서 1,500미터 사이의 심해를 조사하였다. 또한 교육 및 훈련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인터마레호스(INTERMARES) 승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페루 어업인의 어선 어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표 3-6〉 스페인의 대페루 수산 ODA 사업 현황

기간	상세 사업명	사업분야	공여기간	지원액 (USD)
2000	어업개발협력사업	어업 개발	EMP	6,093
2000	어업 및 양식업 개발 사업	어업 개발	MFA	190,424
2000	어업 기자재 기술 개발 지원	어업 개발	EMP	2,216
2000	어업개발협력사업	어업 개발		20,494
2001	어업 개발	어업 개발	MISC	672,577
2001	어업 개발	어업 개발	MISC	392,262
2001	어업 개발	어업 개발	MISC	2,687
2002	티티카카 호수 송어 생산 및 유통 시범 사업	어업 개발	MFA	126,202
2002	어업 및 양식업 개발 사업	어업 개발	MFA	101,953
2002	소스 호수 내수면 양식프로젝트	어업 개발	AG	44,175
2002	어선 관련 교육	교육 및 훈련	EMP	975
2002	기타 협력사업	어업 개발	MISC	21,078
2003	티티카카 호수 송어 생산 및 유통 시범 사업	어업 개발	MFA	164,308
2003	수산물 유통 및 소비 개선	교육 및 훈련	AG	72,887
2003	페루 어업 개발 지원 사업	어업 개발	AG	62,140
2003	연체류 핸들링, 심해 어종관련 연구	수산 연구	AG	62,140
2003	기타 협력사업	교육 및 훈련	MISC	32,672
2003	기타 협력사업	어업 개발	MISC	27,855
2003	기타 협력사업	수산 연구	MISC	27,855
2004	스페인-페루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	어업 개발	MFA	426,140
2004	어업 및 양식업 개발 사업	어업 개발	MFA	308,113

기간	상세 사업명	사업분야	공여기간	지원액 (USD)
2004	어업인 소득개선 사업(PERU)	어업 서비스	MFA	74,258
2004	연체류 및 기타어종 개발 지원 사업	어업 개발	MFA	62,120
2004	수산업 개발 협력사업	수산 연구	MFA	39,326
2004	저소득 계층의 수산물 소비 개선	어업 개발	MFA	34,350
2004	PADESPA 사업 2차	교육 및 훈련	MFA	8,185
2005	북부 페루 어업 시스템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어업 개발	AG	74,288
2005	페루 해역 및 저층 생태계 연구 (페루 수산연구소)	수산 연구	AG	68,357
2005	어업 교육	교육 및 훈련	AG	49,000
2005	수산업 개발 협력사업	어업 개발	MUNIC	10,324
2005	수산업 개발 협력사업	수산 연구	MUNIC	9,500
2005	수산업 개발 협력사업	교육 및 훈련	MUNIC	6,809
2005	수산업 개발 협력사업	어업 개발	MUNIC	4,504
2005	수산업 개발 협력사업	수산 연구	MUNIC	4,144
2005	수산업 개발 협력사업	교육 및 훈련	MUNIC	2,971
2005	수산자원평가모델 구축	수산 정책	EDUC	2,299
2006	수산업 개발 협력사업	어업 개발	MFA	188,277
2006	지속가능한 수산업 개발	어업 개발	MARM	125,518
2006	해양생태계 보존	어업 개발	MARM	37,655
2006	페루 수산업 실태 분석	어업 개발	MARM	18,828
2006	EU 수산물 수출을 위한 수산물 안전관련 규정 수립	교육 및 훈련	MARM	18,828
2006	페루수산연구소 심해 해양 생태계 연구	어업 개발	MFA	17,259
2006	수산물 위생 관리 교육	교육 및 훈련	MARM	15,062
2007	소규모 어업 및 양식업 지원,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수산 정책	MFA	513,347
2007	'BAHIA DE SECHURA COVES'의 개발	어업 개발	AG	16,689
2007	수산물 위생 관리 개선	어업 개발	MARM	16,427
2008	소규모 어업 및 양식업 지원,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어업 개발	MFA	1,586,615
2008	FAO 프로젝트 참여	교육 및 훈련	MFA	360,594
2008	해외 파견 교육(FORPEX)	교육 및 훈련	MFA	288,475
2008	해외 파견교육 2차	교육 및 훈련	MFA	240,396
2008	페루 북부지역 조업 확대 사업	수산 정책	AG	194,844
2008	어업인/여성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페루 NAYNAS 지역 관상어 포획	어업 개발	AG	172,461
2008	세추라만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개발.	수산 정책	AG	137,997
2008	수산업 개발 지원	어업 개발	AG	120,150

기간	상세 사업명	사업분야	공여기간	지원액 (USD)
2008	마누 지역의 열대성 양식장, 빈곤 퇴치를 위한 대안으로서 MANU 지역의 열대성 양식업 개발	교육 및 훈련	AG	94,569
2008	수산물 관련 교육	교육 및 훈련	MUNIC	37,502
2009	소규모 어업 및 양식업 지원,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어업 개발	MFA	626,654
2009	어업인/여성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페루 나이나스 지역 관상어 포획- 2차	교육 및 훈련	AG	205,982
2009	페루 연안의 비브리오 병원성 인자 연구 지원	교육 및 훈련	AG	116,336
2009	세추라만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개발.	수산 정책	AG	88,820
2009	수산물 관련 교육	어업 개발	MUNIC	73,806
2009	수산물 관련 교육	교육 및 훈련	MUNIC	24,478
2009	ILO 사업 참여	수산 정책	EMP	24,098
2010	미구엘올리비에호(Miguel Oliver) 수산물연구선이용한 수산물연구	수산 연구	MARM	798,483
2010	인터마레스호(INTERMARES) 승선 프로그램	교육 및 훈련	MARM	710,038
2010	지속가능한어업 양식업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어업 개발	MFA	231,788
2010	소규모 어업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AG	135,606
2010	ND	교육 및 훈련	MUNIC	30,238
2011	지속가능한어업 양식업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어업 개발	AECID	311,457
2011	어업인 역량 강화 및 관상어 포획 .	어업 개발	AG	205,667
2011	어업인/여성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페루 나이나스 지역 관상어 포획- 2차	어업 개발	AG	102,833
2011	세추라만 소규모 어업 개발	어업 개발	MUNIC	87,788
2011	산타바바라 지역의 양식업 개발을 통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 확보	어업 개발	AG	75,606
2011	세추라만 소규모 어업 개발	어업 개발	MUNIC	69,522
2011	세추라만의 칼레타스지역 어업 개발	어업 개발	MUNIC	62,570
2011	세추라만의 칼레타스지역 어업 개발	어업 개발	MUNIC	22,914
2011	세추라만의 소규모 어업 개발	어업 개발	MUNIC	16,715
2011	세추라만의 전통 어업 개발	어업 개발	UNIV	9,310
2011	세추라만의 소규모 어업 개발	어업 개발	MUNIC	9,131
2011	티티카카 호수 양식장 타당성 조사	수산 연구	AG	2,169
2011	산타바바라 지역의 양식업 개발을 통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 확보	어업 개발	UNIV	1,043
2011	양식 종묘 생산 기술 지원	수산 연구	AG	834

기간	상세 사업명	사업분야	공여기간	지원액 (USD)
2012	어업인 역량 강화 및 관상어 포획 .	어업 개발	AG	281,244
2012	수산업 역량강화 지원	수산 정책	AG	213,635
2012	산타비바라 지역의 양식업 개발을 통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 확보	어업 개발	AG	129,799
2012	지속가능한 양식업 개발	어업 개발	AG	79,234
2012	세추라만의 소규모 어업 개발	어업 개발	MUNIC	27,843
2012	산타비바라 지역의 양식업 개발을 통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 확보	어업 개발	UNIV	11,571
2012	세추라만의 소규모 어업 개발	교육 및 훈련	MUNIC	3,599
2013	어업인 역량 강화 및 관상어 포획	어업 개발	AG	290,505
2013	지속가능한 양식업 개발	어업 개발	AG	190,967

자료: www.openaiddata.org

2. 일본

일본의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은 자국의 국익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ODA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입어권 확보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입장 지지, FTA 등 지역협력에서의 유리한 입지 확보 등을 위해 ODA 사업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일본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 추진은 2008년 10월 new JICA가 출범하면서 무상협력사업은 일본 외무성을 주축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분야 ODA 사업은 JICA와 농림수산성 산하 어업협력재단¹⁸⁾으로 나뉘어 two-track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JICA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산분야의 경제·사회 인프라 정비,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어업협력재단은 입어로 협상과 관련하여 수산관련 시설의 수리, 어업 교육시설, 양식시설, 수산물 가공 시설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대페루 수산 ODA의 대표적인 사업은 ‘페루 어업훈련센터 설립 프로젝트’ 사업이다. 페루 정부는 1982년부터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수산정책의 우선순위는

¹⁸⁾ 과거 민간 단체였으나 최근 농림수산성 산하 기관으로 편입됨

영세 연안어업이었다. 그리고 단일 어종 생산에서 벗어나 해양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페루 국민에게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페루 정부는 연안어업 연수시설 설립을 위한 무상원조와 시설 관리를 위한 기술협력을 일본에 요청하였으며, 일본측은 1998년에 파이타 어업훈련센터 건설을 완료하고 같은 해 프로젝트형 기술협력을 시작하여 2002년까지 수행하였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해양 환경의 변화로 어장 및 어군이 바뀌자 어업 안정성을 유지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다수 어종을 동시에 목표로 하는 어법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따라 비용이 합리적이고 교육이 쉬운 연승어업어구 및 어법을 위한 신규 교육·훈련을 지원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페루 지역 수산사무소 기술인, 대학, 수산연구원, 어업협회장을 대상으로 연승어법 교육 강사를 양성함으로써 연승어업 기술을 습득한 인력을 페루에 양성·확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측은 교육·훈련 연수비용으로 약 3,400만 엔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2차연도 사업으로 페루의 빈곤 감축 및 지역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페루 소규모 어업의 책임있는 어업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상 스페인과 일본의 대페루 수산 ODA 사업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어업 훈련을 통해 페루 소규모 어업인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페루 연안 지역의 수산 자원 조사 등을 통한 표면적으로 현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지원방식은 페루 소규모 어업인의 생계와 연관된 연안의 수산자원을 고갈시킨다는 부정적 여론을 약화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페루 수산 ODA는 2006년에 시작되었으며, 양식 어업과 가공공장의 HACCP 인증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수행에 그치고 있고 스페인, 일본과 비교해서도 사업 규모가 매우 작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7〉 스페인, 일본, 한국의 대페루 수산 ODA 사업 비교(2003~2013년)

	스페인	일본	한국
수산 ODA 규모(달러)	11,436,719	18,911,044	227,381
주요 사업	연구조사선 투입 통한 수산자원 조사, 승선 프로그램 이용한 페루 소규모 어업인 역량강화	어업훈련센터 건립, 어구어법 훈련 통한 소규모 어업인 역량 강화	양식어업인 역량강화 HACCP 역량강화

자료 : www.openaiddata.org

제5절 시사점

우리나라 페루 진출 현황과 주요국의 대페루 진출 현황을 기초로 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왕오징어 쿼터 확보를 위한 페루와의 전략적 경제협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2011년부터 페루 EEZ 조업을 중단하고 공해에서만 조업이 이뤄지고 있다. 페루 정부의 수산자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자국 해역에 입어하는 외국 어선이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비판적 여론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페루 영해 내 입어로 지급을 통한 단순 조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페루 영해 내 수산자원 조사, 기후 변화 영향에 관한 R&D 지원 강화, 페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의 경제협력을 통해서만 입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페루 기후변화에 대한 수산영향과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이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일본, 스페인 사례와 같이 입어와 ODA사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고 수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훈련, 수산분야 자원조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례로 대왕오징어가 라니냐의 영향으로 페루 소형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근해지역에서 어군이 형성되면서 현지 오징어 가공공장(반가공)의 원료 쟁탈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오징어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였고 B사는 대왕오징어 어획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가공 생산의 다변화 전략을 꾀하였다. C사는 원료 공급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객주로부터 대왕오징어 원료를 구입하는 동시에 자사 어선을 이용하여 원료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즉, 어종별로 허가해 주는 페루의 어선어업 허가제도하에서 대왕오징어의 허가를 받아 직접 생산하고 있다. 즉, 페루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페루 어업인의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페루 진출을 위한 협력방향과 주요사업 <<

제1절 기본 방향

페루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종별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EEZ에의 외국 국적 어선의 입어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페루 EEZ의 단순 입어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페루 정부가 양식어업 발전을 수산분야 발전 어젠다로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수산물 수요에 대비하여 페루의 식용 수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수산 협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한인이 운영하는 페루 수산기업은 대부분 페루 EEZ에서 생산되는 오징어를 가공하여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최근 오징어 생산량 감소에 따라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양어업의 페루 재진출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수산분야 경제협력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페루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및 수산업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페루지역 수산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원양어업의 재진출을 도모하는 것이다.

제2절 협력사업(안)

1. 페루 어업인의 역량강화사업

1) 페루 양식어업 역량 강화 사업

페루의 양식어업은 전체 생산량의 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정책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2015년 기준 약 9만 톤의 양식 생산량을 2021년까지 최대 11만 톤으로 확대하고 가리비, 새우 중심의 양식 수산물 수출액도 1억 88만 달러로 증가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어 양식 분야 민간 투자 확대 및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페루의 양식어업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산기술과 관련하여 페루에서 요구하는 양식수산기술은 넙치·전복 양식기술, 방류용 치어 생산, 사료 개발, 양식어류 부화장 설계, 순환여과식 양식 시스템 개발, 대형조류 모종 생산 및 상업용 대형조류 생산 등으로 나타났다¹⁹⁾. 이러한 역량 강화 협력의 주체는 KMI의 중남미협력센터, 페루의 FONDEPS, IMARPE 등이 될 수 있으며 페루에 현지 진출한 기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페루 소규모 어업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

페루의 어선어업은 주로 연안의 소형 어선어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자원의 근해 이동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왕오징어가 연안 뿐만 아니라 200해리 근처까지 이동하고 있으나 페루 어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형 어선으로는 근해까지 이동이 어렵다. 따라서 대왕오징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연안 소형어선 중심의 어업을 근해어장 중심 어업으로 외연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은 페루 수산업의 연근해 어업

¹⁹⁾ 홍현표 외,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2011

발전을 도모하면서 미이용 수산자원의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페루 수산자원을 고갈시킨다는 국제적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대형 어선어업(오징어 채낚기, 트롤, 선망 등) 투입이 필요하며 여기에 우리나라 어선 건조 기업의 수출 또는 현지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근해 조업과 관련한 어구 현대화 사업은 목표어종 어획에 가장 적절한 어구를 효율적으로 제작하여 투입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어획 관련 기자재기업의 수출 또는 현지화(합작, 자본 참여 등)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전 및 신규 건조된 어선에 대해 페루 어업인의 훈련, 역량 강화를 ODA 사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된 오징어는 한인이 운영하는 오징어 가공 공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한인업체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페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사업

1) 페루 해역의 대왕오징어 자원조사

페루에서 대왕오징어는 연안 어업인의 중요한 소득원임과 동시에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 및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페루 수산협력은 페루 대왕오징어의 자원조사를 근거로 페루 오징어어업의 산업화 및 수출 활성화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자원 조사를 통해 페루 해역 대왕오징어의 자원 감소가 남획이 아니라 기후변화(엘니뇨, 라니냐) 등 다른 요인 때문임을 규명하게 되면 페루 해역의 입어가 장기적 측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페루 수산업법 34조에 따르면 페루 영해내 외국어선의 연구조사선 입어는 가능하다. 그리고 대왕오징어 자원량의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대왕오징어를 포함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페루 수산분야 연구인력 역량 강화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페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UN SDGs 목표 달성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및 기업 활동에 대한 호혜적 이미지 구축을 통해 페루 진출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어업 인프라 구축 사업

우리나라는 1960년대~1980년대 어업 생산량 증가에 발맞추어 늘어나는 어선 세력과 수산물 수송을 위한 어항 및 산지 수산물위판장 인프라를 연안에 구축하였다. 이러한 산지 위판장은 어항을 중심으로 수산물 양륙시설, 부대시설(제빙 및 저빙), 유류 공급시설, 판매 관련 시설 등으로 구성되었고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업의 생산을 담당하는 주요 시설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인프라들이 기존의 기능 외에도 지역 경제 기반으로서의 역할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로도 기여하고 있다.

페루는 주요 양육지가 해안선을 따라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가로등, 주차장 등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고 수산물의 위생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부대시설 등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의 양육지에 우리나라의 현대화된 어항과 산지 수산물위판장을 대체·추가하여 설치하고 운영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면, 페루의 수산업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페루수산개발기금 활용 통한 ‘수산업역량강화센터’ 설립

페루 어업인들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지만 페루수산개발기금(FONDEPES)은 수요자의 약 45%만 수용 가능하며, 수업용 기자재 등 관련 교육자원의 부족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페루 수산업의 잠재력을 현실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인력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칭 ‘수산업역량강화센터’ 또는 ‘수산기술훈련센터’ 설립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의 재원은 KOICA의 ODA 사업 또는 해양수산부 ODA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형태의 ‘수산업역량강화센터’는 설립이 어려우므로 현재 페루수산개발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인력훈련 과정을 확대하여 개설하고 여기에 인적·물적 지원을 투입하는 것이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개별 해양수산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던 중 페루 신정부 출범으로 인해 중단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4. 기후변화가 페루 수산업에 미치는 연구조사 사업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약 736종의 페루 해양 어종들이 생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수산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다수의 영세 어업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²⁰⁾. 페루의 대표어종인 안초 베타의 생산량 급감과 이로 인한 어분 생산 감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수산분야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페루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과학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협력 사업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OICA는 2021년 페루 독립 200주년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페루의 중점 지원 분야로 환경보호, 교통, 공공행정 분야 등을 선정하였다. 특히 환경보호 분야에는 ‘해양기후변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나 기후분야와 수산업을 연계한 ODA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페루의 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대페루 ODA 사업으로 기후변화가 페루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페루 어업인의 역량 강화 사업, 페루 수산분야 연구인력 역량 강화 사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²⁰⁾ 페루 기상청은 2030 기후 시나리오에서 엘니뇨 현상의 영향 지속 및 이로 인한 손실 비용이 2030년 GDP의 1%~4%, 2050년 GDP의 3%~2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함(KOICA, 「페루 국가협력전략」, 2016 참고)

제3절 주체별 추진 방안

1. 관학연 중심의 한페루 수산분야 공동 연구 추진

한-페루간 지속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페루의 수산분야 협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연구기관 중심의 페루 수산 분야 연구조사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구 조사 사업은 페루 수산 관련 제도 및 정책 변화 모니터링, 페루 수산업 생산 통계 생성 및 구축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앞서 제안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페루 양식어업 실태조사’ 또는 ‘페루 지역별 소규모 어업 실태 조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페루 지속적 협력 관계 구축 및 공동 연구 플랫폼으로는 KMI 한중남미 해양수산협력센터와 한-중남미 수산포럼(Korea-Latin America Fisheries Forum, KOLAFF)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KMI의 한중남미 해양수산협력센터는 페루의 까야오국립대학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학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2016년 창립된 한-중남미 수산포럼에서는 양국의 수산분야 정부, 관련 유관기관들이 상호 협력 수요와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2. 민간 협력 통한 페루 수산 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

한-페루 수산분야 공동 연구 사업 추진과 함께 페루 진출 주체인 민간 주도로 수산분야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협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발굴의 경우에는 공공제안형, 민간제안형, 공공협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²¹⁾ 공공제안형은 공여국 원조기관의 정기적 공모를 통해 민간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민간 제안형은 민간이 공여국의 원조 기관인 KOICA 또는 수출입은행에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

²¹⁾ 국제개발협력력을 위한 한국의 민간협력사업(PPP) 연구 : KOICA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손혁상 외, 국제지역연구 23권 2호 2014 여름 p.140

다. 공공 협의형은 원조기관과 민간 주체들이 함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많은 경우 컨퍼런스 등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및 추진은 실제 페루에서 사업을 수행 또는 수행 예정인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아이디어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민간의 필요에 따른 사업 발굴이기 때문에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장점을 가진다. 나아가 유사 분야의 민간 주체 참여폭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동 투자를 유도하여 정부기관의 공적 자금 투입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3. 대페루 부처간 국제개발협력사업 연계 추진

페루 수산업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수산업을 둘러싼 여타 제반 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페루의 수산물의 위생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어항 인근의 제빙 및 저빙 시설, 전력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수산분야 유·무상 ODA사업 또는 수산분야 민관협력만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인력 및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협력 사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해상과 육상을 연계하는 유·무상 ODA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즉, 국내 공적원조기관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간 협력 또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간 협력을 통해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사업 목적성을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주체인 KOICA 또는 수출입은행의 사업 선정단계에서 부처간 사업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연계 사업을 통한 페루 수산업의 발전 기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입어권 획득 또는 수산기업의 페루 진출시 우호적 경영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김대영·이정삼·이헌동,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어용 어분의 안정적 확보 방안 연구』, 2012.
- 김순성,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III.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2016.
- 김종섭·박명호·이영섭·김종범·박선희·정재원·이은석·김희연, 『유럽의 ODA 정책과 한·유럽 개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농림수산물식품부, 『원양어업 50년 발전사』, 2008.
- 원양산업협회, 『2016 원양산업 통계연보』, 2017.
- 손혁상 외,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PP) 연구 : KOICA ‘글로벌 사회공헌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손혁상 외, 국제·지역연구 23권 2호 2014 여름 pp. 121-155
- 하상섭, 「페루의 기후변화 영향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 고찰 : 농업과 수산업」, 트랜스라틴, 제31호, 2015.
- 하상섭·조정희·김경진, 「페루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현황과 한계 그리고 국제협력 연구」, 중남미연구, 제35권 4호, 2016.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발걸 연구: 아프리카 및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2015.
- 홍현표 외, 『남미지역 양자협력 및 수산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2011.
- KOICA, 「페루 국가협력전략」, 2016.
- KOTRA 리마 무역관, 「2017 페루시장 진출 전략」, 2016.

〈해외 문헌〉

- FAO,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16.
- I CENSO NACIONAL DE LA PESCA ARTESANAL ÁMBITO MARÍTIMO, 2012, Ministerio de la Production
- Jorge Salguero López, State of the Fishery, Ocean, Sea Port Logistics Industry and proposed Lines of Cooperation in Peru, 2015
- Peru's Business & Investment Guide 2014-2015, EY
- Vlad M. Kaczynski, The South America-Atlantic Fisheries: Main Assets and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2013

〈인터넷 자료〉

- 페루 수산업통계연보 2015, <http://www.produce.gob.pe/index.php/features/anuario-estadistico>
- 한-페루 FTA 협정문 제20.5조,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pe/2/>
-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Ú(페루 중앙은행), <http://www.bcrp.gob.pe/>
- CIA, World Factbook(www.cia.gov); Peru's Business & Investment Guide 2014-2015, EY
-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ttp://www.cepal.org/en>
- FAO, Coastal State requirements for foreign fishing - PERU, <http://www.fao.org/docrep/V9982E/v9982e3b.htm>
- FAO, Profile of Peru, <http://www.fao.org/fi/oldsite/FCP/en/per/profile.htm>
- Google, 사진 인용, www.google.co.kr/search?q=POTA&newwindow
- Open Aid Data, www.openaiddata.org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 인 쇄	2017년 9월 28일 인쇄
• 발 행	2017년 9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양 창 호
•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 조판·인쇄	(주)비전테크시스템즈 02-3432-7132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

정가 6,000원